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88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5년 2월

석사학위 논문

한·중 한국어 교재의 조사와 조사 결합에 관한 비교 분석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진 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중 한국어 교재의 조사와 조사 결합에 관한 비교 분석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n Particles and Complex Particles in Korean Textbooks Published in Korea and China

2015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진 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중 한국어 교재의 조사와 조사 결합에 관한 비교 분석 연구

지도교수 석주연

이 논문을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진 정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진 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옥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금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석주연 (인)

2014년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선행 연구 검토 ·····4
1.2.1.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교육에 관한 연구 ·····5
1.2.2. 조사 기술에 관한 교재 분석 연구 ·····8
1.3. 연구 범위 및 방법 ·····11
2.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한 한국어교육 ·15
2.1.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15
2.2. 한국어 교육의 쟁점 ·····16
3. 한국어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비교 ·20
3.1. 선정된 교재의 성격 ·····20
3.2. 한국어 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 ·····26
3.3. 교재 분석 및 비교 ·····36
3.3.1. 조사의 명칭 ·····37
3.3.2. 조사의 제시 순서 ·····41
3.3.3. 조사의 설명 방법 ·····48
4.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한 바람직한 기술 방안 ·57
4.1. 조사의 명칭 ·····58
4.2. 조사의 제시 순서 ·····62
4.3. 조사의 설명 방법 ·····69
5. 결론 ·····82
참고문헌 ·····8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차

<표 1> 한국어 교재 현황 ·····2
<표 2> 국내 발행 한국어 교재의 교육 영역별 현황 ·····3
<표 3> 선정된 여섯 종 한국어 교재 ·····13
<표 4>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성격 ·····20
<표 5>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구성 ·····21
<표 6>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성격 ·····23
<표 7>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구성 ·····24
<표 8> 한국어 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는 경우 ·····29
<표 9> 한국어 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일인 경우 ·····30
<표 10> 한국어 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다인 경우 ·····31
<표 11> 한국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명칭 ·····37
<표 12> 중국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명칭 ·····39
<표 13> 『현대어 사용 빈도 조사』(2002)에서 제시된 조사 순서(일부) ·····42
<표 14> 한국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제시 순서 ·····43
<표 15> 중국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제시 순서 ·····46
<표 16> 한국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설명 ·····49
<표 17> 중국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설명 ·····52
<표 18>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명칭의 개선 방안 ·····60
<표 19> 사용 빈도와 용이성에 따라 조사 학습 순서 ·····62
<표 20> 사용 빈도에 따라 한국어 조사의 제시 순서 ·····64
<표 21> 세종 문어, 구어 말뭉치 내 상위 15위조사 결합 항목 비교 ·····65
<표 22> 한국어 조사의 바람직한 제시 순서 ·····66
<표 23> 한국어 조사 간 결합형의 바람직한 제시 순서 ·····6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n Particles and Complex Particles in Korean Textbooks Published in Korea and China

Jin Jeong
Advisor: Prof. Suk Ju Yeon
Department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Korean textbooks for Chinese learners published in Korea and China with respect to names, orders, and descriptions of Korean particles and complex particles, and to propose an improvement of those problems.

Chinese Korean learners have great difficulties in learning Korean particles and complex particles. Korean textbooks used in colleges and language institutions in Korea and China are a first medium for Chinese Korean learners. As the number of Korean textbooks increases, those problems appear in Korean textbooks. Since there is no corresponding particle forms in Chinese grammar, learning Korean particles is perplexing for Chinese in beginning and/or intermediate Korean classes. It is confusing for Chinese Korean learners to master complex particles which combine several particles in distinctive orde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mplex particles are defined as a combination of single particles in a low. In this thesis I selected six Korean textbooks published in Korea and China to find out problems on names, sequential orders, and descriptions of single particles and complex particles.

The result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unified names of particles and complex particles in Korean textbooks, which are confusing to Chinese learners.

Second, the order of particles in complex particles is different form editor to editor.

Third, descriptions on complex particles are not sufficient for Chinese learners.

The improvement of this thesis as follows:

First, Korean textbooks should be written in the terminology of the Korean grammar, such as names of particles and complex particles. The usage and context of each particle should be provided with Chinese terminology.

Second, the order of particles and complex particles in Korean textbooks should be present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rate of them.

Third, description of particles and complex particles should be followed by their meaning and usage as well as their basic sentence structures.

This implementation would help Chinese Korean learners. Principles of types of combinations for complex particles and the order of particles will be left for a further research.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에서 출판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 배열순서, 설명 방법 등의 문제점을 찾아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1] 한국과 중국 대학교 혹은 언어교육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학습자가 최초로 한국어를 접촉할 수 있는 매개(媒介)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교재에서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명칭, 배열순서, 설명 방법에 있어서 불확실한 기술, 혼란스러운 기술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은 최근에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한·중 양국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2009년까지 중국에서 한국어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은 76곳이 있고, 재학생 수는 1만 3천명을 넘었다. 이외에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지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2년제, 3년제 전문대학도 약 60여 곳이 있다(장국강 2010). 한국어 학습자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 되었다. 주교재, 부교재, 자습(自習) 교재, 회화연습 교재 등이 많이 출판되었다(손정일 2005).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김순녀(2009)에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을 여섯 가지 제시하였다. 통일된 한국어 교수요강(교수요목), 한국어 교재 편찬과 교수법 이론 연구, 등급 표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체계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한국어 문법 교육체계 확립은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1) 변흥(2010), 김령(2012) 등에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립국어원(2008. 2009)은 한국어 교재를 언어권별 한국어 교재현황. 자료 유형별 한국어 교육 교재 종류. 기관별 한국어 교육 교재 종류. 국내외 한국어 교육 교재 수 등으로 조사하여 <표 1>처럼 분류하였다.

<표 1> 한국어 교재 현황(국어 정책 통계 지표 기발 및 조사 수행, 2009)

조사 항목	분류		통계 지수	조사시기	비고
언어별 한국어 교육 교재 종	범용(한국어)	26종	125종	2008년 10월	국립국어원 (2008), 한국어 교재 등 콘텐츠 개발 현황
	영어	30종			
	일본어	24종			
	중국어	16종			
	러시아어	8종			
	베트남어	5종			
	몽골어	5종			
	타갈로그어	4종			
	태국어	4종			
	프랑스어	3종			
	아르메니아어	2종			
	말레이어	1종			
	인도어	1종			
	스페인어	1종			
자료 유형별 한국어 교육 교재 종류	교재	63종	125종	2008년 10월	
	부교재	40종			
	기타	22종			
기관별 한국어 교육 교재 종류	국립국어원	74종	125종	2008년 10월	
	국립국제교육원	43종			
	한국국제교류재단	22종			
국내외 한국어 교육 교재 수	국내	831권	33개국 3,399권	2009년 1월	국립국어원 (2009), 국내외 한국어 교재 백서, 국립국어원
	동북아시아권	2,011권			
	기타아시아권	221권			
	영어권	260권			
	유럽권	66권			
	아랍 · 아프리카권	10권			
	라틴아메리카권	0권			

http://stat.korean.go.kr/policy.do?method=detail&murl=sub05_0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언어별 한국어 교육 교재 수는 범용(한국어) 26종. 영어 30종. 일본어 24종. 중국어 16종 등 총 125종이 있고. 국내 기관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재 수는 국립국어원 74종, 국립국제교육원 43종. 한국국제교류재단 22종을 비롯하여 총 125종이 있고. 국내외 한국어 교육 교재 수는 국내 831권. 동북 아시아권 2,011권. 기타 아시아권 221권 등 총 33개국 3,399권이 있다.

국립국어원 · 한국어문교육연구소(2010)는 국내 발행 한국어 교재의 교육 영역별 현황 (2009년)(출처: 국어 정책 통계 조사 및 통계 연보 작성, 2010)에 따르면 교재의 대부분은 일반 교재이고, 문법. 독해. 쓰기. 회화, 발음 교재 등은 아직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표 2> 국내 발행 한국어 교재의 교육 영역별 현황
(출처: 국어 정책 통계 조사 및 통계 연보 작성, 2010)

교육 영역	권수
일반 교재	48
어휘 교재	9
문법 교재	7
자격시험 교재	6
쓰기 교재	4
회화 교재	4
독해 교재	2
발음 교재	1

http://stat.korean.go.kr/policy.do?method=detail&murl=sub05_02_05

일반 교재는 48권, 문법 교재 7권, 독해 교재 2권을 발행하고 있다. 일반 교재에 비해 문법 교재와 독해 교재는 출판된 교재 권수에 차이가 크다.

또한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통-번역 과목이 있으므로 통-번역 관련 교재 개발도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김윤수 외(2013)는 부사격조사 '-에서'를 예시로 한국어 교재에서 난이도에 따라 등급별로 의미 · 기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민지혜(2012)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국어 교재 내에 '문법'항에 대한 표준화 분류와 제시 순서, 사용 빈도, 문법 설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 언어 상황 속에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조사의 사용을 포함한 문법 규칙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문법 교육을 통해서 언어구조와 사용의 원리를 이해하고, 언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왕미 2010).

한국어 문법에서 조사는 외국인에게 습득이 매우 어려운 것 중 하나다. 한윤정(2010)은 한 대학에서 2009년 가을 학기 중급 학습자 29명의 자유 작문 쓰기 텍스트 실험하였다. 작문 중에서 나타난 조사 결합의 형태는 '-에는, -에서는'으로 단 두 가지이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조사 결합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고, 써야 한다는 의식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을 생성할 때 조사를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조사 결합 형태를 사용하면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다는 것은 조사 결합 형태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는 것은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조사끼리의 결합은 조사 간 결합형[2]이라고 정의한다. 한국어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기술 방식을 분석한 다음에,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어 교재의 바람직한 기술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교육에 대한 연구와 교재 분석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는 본연구자의 지도교수님이신 석주연 선생님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2.1.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교육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급과정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에 한국어 교재의 기술 방안을 개선하는 데 있다. 본 절에서는 조사에 관한 연구와 조사 간 결합형에 관한 선행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조사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있는데 그 중에서는 조사의 사용 오류, 조사의 학습 순서와 중국어 대응 의미에 관한 연구들이 대체로 많았다. 여기에서는 조사에 관한 연구는 조사의 사용 오류, 조사의 학습 순서와 중국어 대응 의미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조사 사용 오류에 관한 연구는 이은경(1999), 민진영(2002), 박종효(2009)등이 있다. 또한 박소영(2008)은 중국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수집하여 그 중에 조사가 사용된 1,025개 문장을 대상으로 조사 사용 빈도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오류 빈도수가 높은 조사 '-이/가, -을/를, -은/'의 누락, 첨가, 대치 오류로 분류하고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모국어의 간섭, 문장 내의 복잡성에 기인한 오류, 목표어 규칙의 확대 적용에 의한 오류,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한 회피 등이라고 밝혔다. 조사의 사용 정확성을 강화시키려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조사 학습 순서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정지은(2004)은 한국어 사용 빈도와 한국어의 기본 문형을 바탕으로 한 조사 학습 순서를 제시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학습 모형을 토대로 수업을 실행한 효율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재에서 조사 학습 순서의 기준과 자료 개발에 대해 제안하였다.

또한 이안나(2010)는 이해 실험과 산출 실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습득 순서를 알아보고, 한국어 모어 아동 화자의 습득 순서와 비교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조사 순서에 대한 교육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어 조사에 대한 중국어 대응 표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한국어 조사에 대응하는 일정한 중국어 품사는 없지만 가장 비슷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어 '개사(介詞)[3)]'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최병덕(2005)은 중국어 작문 교육과 학습의 목적으로 한국어 조사 '-에게'의 여러 의미기능에 따라 각각 대응하는 중국어 의미를 밝혔다. '-에게'의 한국어 의미는 네 가지가 있지만, 이에 중국어 대응 표현은 '소재, 수여의 대상, 행위의 주체자'의 세 가지만 있다고 하였다.

유환(2014)은 한국어 비교격 조사(比較格 助詞)와 중국어 비교류 개사(比較類 介詞)[4]의 의미 기능과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어 비교격 조사와 중국어 비교류 개사와 대조하였다. 비교격 조사와 비교류 개사의 의미 기능 특징을 대조하여 비교격 조사는 '동등, 차등, 동등과 차등'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중국어에는 '차등, 동등'으로만 분류 가능함을 밝혔다. 또한 조사 간 결합형도 차이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교격 조사와 비교류 개사의 통사적 특징을 대조해 보았다.

한편, 한국어 조사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교재의 조사 간 결합형 기술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 조사 간 결합형은 학자에 따라 관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국어학 연구와 한국어교육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학 분야의 연구는 최태성(1999), 김재욱(2001), 임동훈(2004) 등이 있다. 최태성(1999)는 국어 조사의 결합 관계중 하나는 서로 다른 부류 간의 조사 결합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부류 내의 조사 결합이라고 하였다. 국어 조사를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나누고 이를 다시 상호 배열 특성에 따라 다시 조사는 제Ⅰ류의 조사, 제Ⅱ류의 조사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부류 간, 동일한 부류 내의 조사 결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또한 임동훈(2004)는 먼저 조사의 하위 부류를 나누고 최태성(1999)와 유사하게 각 부류 간의 조사 간 결합형을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조사 간 결합형의 제약과 결합 순서를 밝혔다. 즉, 조사들의 의미 기능을 바탕으로 분포와 결합 유형을 살폈다.

---

3) 『현대한어사전』(2012)에서는 개사는 단어와 단어, 단어와 문장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허사로 문장에서는 단독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4) 유환(2014)에서는 개사(介詞)중에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고 비교의 관계를 표시해 주는 비교류 개사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재욱(2001)은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의 상호결합 현상을 분석하여 그 규칙을 밝혔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격으로 조사를 분류하는 것보다는 의미기능으로 조사를 분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조사의 상호결합에 따른 기능을 분석하여 조사의 상호결합규칙은 '주격조사, 목적격조사+부사격조사/주격, 목적격조사+보조사'[5], 부사격조사+주격/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보조사, 부사격조사+보조사+주격조사/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부사격조사', '보조사+부사격조사', '보조사+주격/목적격조사'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조사 결합에 대한 연구는 한윤정(2010), 이진은(2011), 동양효(2012) 등이 있다. 한윤정(2010)에서는 학습자들의 조사 결합 습득의 어려움을 양상을 밝히고 중간언어 변이 형태를 살펴보았다. 세종 말뭉치와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조사 결합 노출, 실현 빈도와 양상을 살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 결합에 대한 인식이 조사 결합 항목 산출에 미치는 영향과 조사 결합 항목에도 적절한 습득 단계가 있을 것인가의 두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것을 토대로 한국어교육에서의 조사 결합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사는 한국어 교실에서 조사 두 개가 결합하여 사용되는 사실을 먼저 교육하여야 하고 조사 결합 시 위치에 대한 규칙을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조사 결합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교육방안을 이 연구에서 실제 수업을 통해 효과와 문제점을 알아보지 못하는 점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 교육방안을 바탕으로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에 관한 기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진은(2011)은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 결합형에 대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다른 단계의 학습자보다는 초급 단계에서 조사가 많이 다루어졌다. 초급 단계에 조사의 학습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급, 고급 단계에 가면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한다.[6] 이러기 때문에 초급 단계부터 개별

5)선행하는 주격, 목적격조사는 격 기능을 나타내야 하나 문장에서 그 격을 알 수 있으므로 격 기능을 나타내는 주격, 목적격조사는 실현되지 않는다(김재옥, 2001).

6) 이진은(2010)은 박소영(2008)에서 언급된 오류 양상 분석을 참조하였다. 박소영(2008)은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오류를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급 단계에 같은 조사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부쩍 경험하게 되었고 초급 단계에서 이미 자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조사의 쓰임뿐만 아니라 조사가 결합하는 환경에 대한 사례와 규칙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 조사 간 결합형을 만드는 공통 단일형 조사 '-에, -에서, -에게, -는, -도, -만, -보다'를 선정하여 조사 결합의 제시 순서, 결합 유형을 분석하여 교재에서 바람직한 제시방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조사 결합의 교수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초급 학습자 대상으로만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중급 학습자들에게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동양효(2012)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조사 결합 사용 양상과 오류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목표언어 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조사 결합을 사용해야 된다는 의식의 부족함과 복합 원인을 밝혀내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덩어리 표현을 활용한 조사 결합의 규칙을 교육하고, 화자의 말하는 내용의 맥락을 활용한 의미·화용의 교육 방법, 번역과 문법의식 고취를 위해 연습하고 조사 결합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것의 세 가지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체계적으로 조사 결합에 대해 분석하였지만 분석한 교재를 더 다양하게 채택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다 확실하게 조사 결합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초·중급에서 조사 간 결합형을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1.2.2. 조사 기술에 관한 교재 분석 연구

외국어로서 언어를 학습할 때 교재는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김정민(2007)은 교재의 기능을 네 가지로 나누어 밝혔다. 교재는 기본적으로 교수-학습의 내용을 규정지어 주고 선정된 내용을 교육 목표 및 학습 단계에 맞춰 재가공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목표 선정을 구체화시킨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목표어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화를 강화한다는 역할을 담

잡은 조사의 용법과 혼동을 일으켜 중국 학습자가 매우 당황한다고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당한다.

교재가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만큼 교재는 외국어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단계와 교육 현장의 특성에 맞추어 교재를 최대한 활용하므로 학습자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고 한국어 조사와 조사 결합 현상을 교재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이를 위해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항목의 기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와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비교 분석하고,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이주화 · 전나영(2011)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문법책 7권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문법책을 문법 범주[7] 중심의 교재와 문형[8] 중심의 교재 두 가지로 나누었다. 두 가지 문법책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문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통일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예문 많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조항록(2003)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사용하는 기존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재의 특징을 밝혔다. 문법 교수요목, 상황 교수요목, 주제 교수요목이 혼합된 교재이므로 문법, 어휘의 위계화, 발화 단위의 위계화 등에 있어 오랜 기간의 교육 경험에서 나온 실증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였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대상으로 특징을 정리하였지만 언어학적 원리나 교수법과 관련해 볼 때 최근의 경향과는 거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의 기술에 관한 연구는 이윤정(2002), 이해영(2004), 왕미(2010) 등이 있다.

---

7) 이주화 · 전나영(2011)의 각주11 '문법 범주(grammatical category)'는 조사, 어미, 시제, 대우법, 피동법, 사동법, 부정법 등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전나영(2009)을 참조.

8) 이주화, 전나영(2011)에서 각주12 '문법 항목(grammatical item)'은 문법 교수의 단위로 문법 교재에서 표제어로 삼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윤정(2002)은 한국 대학교에서 출판된 한국어 초·중급 교재 경희대학교 『한국어』, 고려대학교 『한국어』와 『한국어회화』, 서울대학교 『한국어』, 선문대학교 『한국어』, 연세대학교 『한국어』,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 국제교육진흥원 『한국어』, 문화관광부 『한국어』, 시사 에듀케이션 『가나다 KOREAN For JANPANESE』등 10개 교재를 선정하였다. 각 교재별로 '문법'항에 정리된 '조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풀이도 각 교재에서 풀이한 그대로를 입력,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초·중·고급으로 나누어 각 교재에 나타난 조사의 수용양상과 함께 교재에서 조사가 어떻게 풀이되고 있는지를 상위빈도순으로 살펴보았다. 격조사를 중점적으로 학습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보다 보조사 '-도'가 가장 많이 제시·풀이되어 있다고 하였다. 중급단계에서 보조사가 많이 출현하고, 조사의 결합형도 많이 출현한다. 중급 교재부터는 풀이가 제시되지 않고 문법요소와 예문만 제시한 교재가 많고, 고급 교재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조사가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조사 학습을 위해 남윤진(2000)의 균형 말뭉치를 참고하여 조사의 학습 순서를 정하였다. 초급 단계에서 '-을/를, -이/가, -의, -은/는, -에, -으로, -도, -에서, -과/와, -에게/께, -이나(확대), -만, -에서(부터)…까지, -보다, -마다'와 같은 학습 순서를 정하였고, 중급 단계에서 '-밖에, -이라도, -에다가, -대로, -처럼, -만큼, -이나(선택), -에게서/한테서, -이야, -이야말로, -조차'와 같은 학습 순서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 학습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초급에서는 격조사를 중심으로 중급에서는 보조사를 중심으로 조사의 효과적 학습 순서를 제안하였다.

이해영(2004)는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을 분석 대상으로 문법 설명 부분과 문법 학습 활동을 두 가지를 분석하였다. 고려대학교 한국어교재,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재,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 교재는 조사 '-이/가' 앞에서 '-'를 붙여 쓰고 있고 이들 교재가 교육적 편의성을 따랐다고 하였다. 각 교재에서 조사 '-이/가'의 명칭은 영어로 'subject particle', 'case particle', 'subject marker'로 제시하였다. 세부적인 특징을 보면 경희대 교재와 연세대 교재는 1, 2인칭 대명사 '나, 너'에 주격조사가 붙은 경우 '내가, 네가'에서 보듯이 '내'와 '네'로 바뀌는 것으로 설명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연세대 교재와 고려대 교재는 이중주어 구문도 다루고 있다. 서울대 교재에서는 조사 '-이/가'가 학교문법에서 보격조사로 처리되어 있고 문법을 설명하는 본문 하단부 '[note]'에 주격조사가 설명되어 있다. 또한 조사 '-은/는'은 고려대 교재에서 조사 '-이/가'와 비교 내용을 다루고 있고, 고려대 교재와 연세대 교재는 조사의 분포 조건도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 교재는 문법적인 측면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과거에 만들어진 교재는 등급화된 문법 항목의 선형적 학습과 문장 층위의 다소 기계적인 연습을 수록하고 있었으며 최근의 교재들은 의사소통적 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미(2010)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대학교의 초급 한국어 교재『한국어』(2000), 『초급한국어』(2006), 『초급한국어』(2005)『표준한국어』(1996) 등 네 가지를 분석하여, 한국어 조사의 명칭, 선정과 배열, 설명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출판된 중국어 모국어 화자를 위한 입문·초급 교재로서 중국의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 주교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네 가지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출현된 15개 조사를 가지고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의 명칭, 선정과 배열, 설명 방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만 선정하여 분석하였고 한국에 있는 초급 한국어 교재는 제외하여 한계를 보인다.

1.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고에서는 한국어 조사 및 조사 결합 항목을 중심으로 한·중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분석 대상으로 삼는 한·중 한국어 교재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전체적인 순서와 연구 방법을 제시하기로 한다.

분석한 교재 간 비교를 위해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3종과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3종을 선정하였다. 이 6종 교재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한 기관에서 편찬하거나 교재로 삼은 교재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둘째, 출판 연도가 최근일수록 실제 언어현상을 반영하는 교재이다.

셋째, 발음, 문법, 어휘, 읽기, 쓰기 연습 등이 포함된 통합 교재이다.

넷째, 모두 외국인(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편찬한 교재이다.

본고는 한국어 조사와 조사 결합 현상을 진행하므로 초·중급 한국어 교재에 한다며 분석하겠다. 제시된 기준으로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이화 한국어1-4』(2010~2012), 『연세 한국어1-4』(2007~201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2010)[9]을 선정하였다.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표준한국어 (수정판) 1-2』(2011), 『기초한국어 (수정판) 1-4』(2009), 『한국어 (수정판) 1-3』(2008)을 선정하였다.

우선, 선정된 한국 교재를 보면 모두 한국의 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출판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교재[10]이다. 단,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경희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라고 하였는데 '한글파크'에서 출판되었다. 출판 연도를 보면 거의 2010년 후에 출판되는 교재라서 최근에 나온 교재로 대표할 수 있다. 『이화 한국어』와 『연세 한국어』 두 가지 교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 '중국어판'으로 선정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대상은 명확히 '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라고 하지 않지만 '외국인 학습자 대상으로'라고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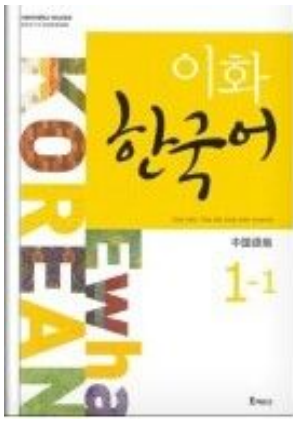
다음에, 선정된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보면 모두 중국어 모국어 화자 대상으로 중국의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어 교재이다. 출판 연도가 가까운 것을 분석하기 위해 최대한 새로운 '수정판'으로 택하였다. 『기초 한국어 (수정판) 』와 『한국어 (수정판) 』은 한국 교재보다는 2~3년 오래되었다. 이 3가지 교재를 보면 음운, 어휘, 본문, 문법 등으로 통합하여 구성되었다. 이 여섯 종 교재의 이미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초급1~2권, 중급1~2권을 선정하였다.
10) 교재의 머리말에서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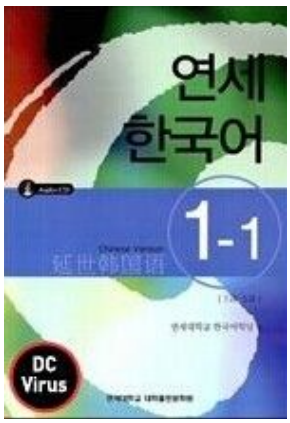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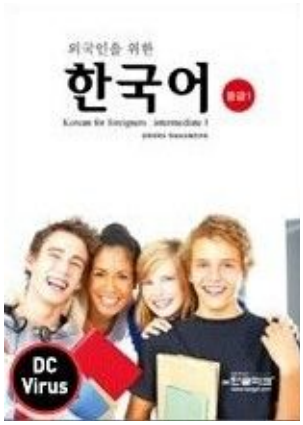
<표 3> 선정된 여섯 종 한국어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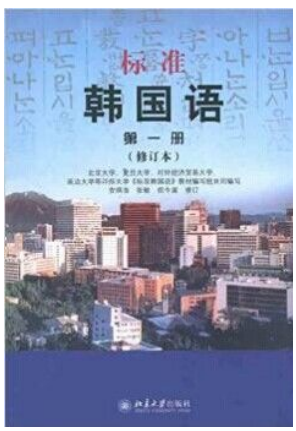
『이화 한국어』



『연세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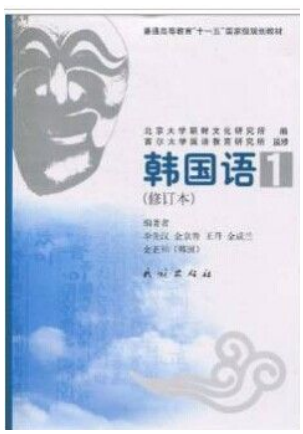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표준 한국어』

『기초한국어(수정판)』



『한국어(수정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할 때 교재 내의 '문법'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 연습 문제, 문화 소개 등에 나타난 조사 간 결합형도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을 명칭, 배열순서, 설명 방법 세 측면을 분석하면서 한국 교재에서 문법 설명 부분에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대로 반영하였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번역만 하고 최대한 제시된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이상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 한다. 2장에서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정의, 분류, 유형 등을 살펴보고, 한국어교육에서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정의, 분류, 유형 등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선정한 교재의 성격과 구성을 소개하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대응 표현을 살펴보겠다. 교재를 분석한 후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제시 명칭, 나타나는 순서, 설명 방법 등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4장에서는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 제시 순서, 설명 방법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을 지적하겠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한 한국어교육

본장에서는 먼저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정의, 하위분류, 유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한국어 교육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겠다.

2.1.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한국어 조사는 일반적으로 체언에 결합하여 그 체언이 다른 성분과 갖는 관계를 나타내거나 체언의 의미를 더해주고 한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의미에 따라 격조사, 특수 조사, 접속 조사로 분류한다.

격조사와 보조사는 세분하면 어느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지가 달라진다. 고영근·구본관(2008)은 격조사의 형태를 중심으로 혹은 통사·의미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문장 성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형태중심으로 격조사를 분류하면 '주격조사, 속격조사, 대격조사, … ' 로 볼 수 있다. 통사·의미론적인 기능에 따라 격조사는 '행위격, 대상격, 도구격, …'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어 학교문법에서는 형태 중심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문장 성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서술격조사, 부사격조사, 호격조사'로 분류한다.

보조사는 주로 의미·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교문법의 조사의 명칭을 따른다. 그리하여 조사는 의미에 따라 격조사, 접속조사, 특수조사로 분류하고, 격조사는 문장 성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보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서술격조사, 호격조사로 분류한다.

한국어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이다. 고려하는 기준에 따라 차이도 많이 난다. 범주에 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사 간 결합형의 개념과 범주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태성(1999)은 조사를 겹쳐 사용하는 것을 조사 결합이라고 보았다.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도 공시적으로 각각의 조사로 볼 수 있는 결합을 조사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속구성체라고 하였다. 조사끼리 결합하여 그 중에 하나만 빼면 비문법적 문장이 되는 경우는 합성조사라고 하였다.[11] 본고에서는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의 수준이 맞추기 위해 기본적으로 조사끼리의 결합 현상을 조사 결합이라고 인정하여 총괄하게 구별 없이 '조사 간 결합형'이라고 통칭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 간 결합형의 유형에 관한 연구인 박소영(2005)은 '구조격조사+X구성, 의미격조사+X구성, 보조사+X구성'으로 나누어 살폈다.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말뭉치를 대상으로 조사 실현 양상을 연구하였다. '구조격조사+X구성'은 문어와 구어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구조격조사+보조사'는 문어에서 실현되지 않았는데 구어에서는 실현되어 있다고 하였다.

조사 간 결합형 순서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한윤정(2010)은 고석주(2008)를 참조하여 세종 문어, 구어 말뭉치 내 상위 15위 조사 결합 항목[12]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에는, -에서는, -에도'가 빈도수가 가장 높았고, '-로는, -에서도, -보다는, -로도' 등은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문어에서는 '-에게는'이, 구어에서는 '-에게'의 구어적 표현 '-한테'가 사용된 '-한테는'이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엔, -에선'이 포함되어 있고, 비표준어이나 구어적 표현 중에 '-에두'가 포함되었다.

조사 간 결합형을 어떻게 실제로 발화에서 구현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수많은 조사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해야 할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박지용(2005)은 의미기능을 가진 조사가 먼저 결합하고 문법기능을 가진 조사가 뒤에 옴을 주장하였고 의미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나 의미기능이 반대되는 경우에는 조사끼리 결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2.2. 한국어 교육에서의 쟁점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과 관련 하여 한국어 교육에서의 쟁점을 제시

11) 예를 들면 '영희는 부산으로부터 전학 왔다.' 에서 '-으로' 혹은 '-부터' 중 하나만 빼도 의미 바꾸거나 비문법 문장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연속구성체가 아닌 합성조사라고 보아야 한다(고영근·구본관, 2008).

12) 한윤정(2010: 21)에서 표8을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해 보도록 한다. 본 절에서는 주로 한국어 조사의 오류 현상 및 조사 결합 현상에 관한 내용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육 내용 기술 방식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겠다.

조사의 오류 현상은 조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조사의 오류는 주로 첨가 오류, 누락 오류, 대치 오류의 세 가지가 있다. 박소영(2008)은 누락 오류가 학습자의 모국어 영향을 받아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는 모국어가 조사 체계가 없는 고립어인 중국어이기 때문에 조사를 써야 한다는 인식이 없다. 하지만 조사를 쓰지 않더라도 조금 어색하지만 소통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 누락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격조사 '-이/가'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 영향 때문에 많이 생략한다. 즉,'처음 한국에 왔을 때 비 왔습니다(박소영2008: 35)'라고 말한다. 중국인 학습자는 조사 '-이/가'와 조사 '-을/를', '-은/는'의 용법을 구별하지 못하고 대치하기도 한다. '대학을 합격하면 행복할거야'를 '대학이 합격하면 행복할거야(박소영2008: 39)'처럼 목적격 조사 '-을'을 주격조사 '-이'로 대치한다. 마지막으로 '-이/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첨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저와 저의 친구가도 명동에 갔어요.(박소영2008: 37)'와 같이 주격조사 '-이/가'가 필요 없는 자리에 첨가된 경우가 많다. 한국어 교육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초·중급 학습 단계에서 조사 사용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사 간 결합형에 관한 연구에서 '복합조사' 정의도 다양하다. 김진형(2000)에서는 두 개 이상의 조사가 연속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조사의 중첩' 혹은 '조사끼리의 상호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 1.2.1에서 언급했던 고영근·구본관(2008)은 '복합조사'와 '조사연속구성체'를 구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어학에서 일치된 견해들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한국어교육에서 조사 간 결합형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 체계에 대한 생소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구별하여 가르쳐야 할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사 간 결합형의 분류에 관한 연구도 차이가 많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박소영(2005)에서는 '구조격조사+X구성, 의미격조사+X구성, 보조사+X구성 세 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를 나누었다. 조사의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결합 유형을 정리하였다. 임동훈(2004)은 조사 결합을 '의미격 조사+의미격 조사, 의미격 조사+문법적 조사, 의미격 조사+후치사, 의미격 조사+첨사'로 나누었다. 또한 '종합'과 '예외'인 경우를 포함하여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문법격 조사, 의미격 조사, 후치사, 첨사 여러 조사 간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두 연구는 조사의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 간 결합형의 유형도 다르게 되어 있다.

조사가 중국어에 없는 중국인 학습자도 한국어 조사 간 결합형의 유형을 알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 간 결합형의 유형을 어떻게 제시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어 교재의 조사 기술 방식에 관한 논의는 한정한(2010)은 조사의 범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학교문법에 의하면 조사는 단어에 속하는데 자립적인 면에서 보면 품사로 인정하기 어렵다. 우순조(2006)도 한국어 조사의 기술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한국어 조사에 대해 적절하고 타당한 기술을 위해 조사와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조사 기술과 관련된 쟁점들의 문제는 조사의 형태·통사적 지위문제와 통합 대상 문제, 'XP-조사' 연쇄의 범주적 정체성 문제, 문법적 기능 기술의 문제, 조사 격부여의 문제, 표지 개념에 의한 분류와 조사 실현 원리의 필요성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설명한 과정에서 한국어 조사가 통사적 단위이며 그 통합 대상이 선행하는 명사가 아니라 선행하는 통사적 구성 전체와 통합됨을 지지하는 통사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XP-조사' 연쇄의 범주적 정체성 문제는 조사를 핵어로 보는 분석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분류와 관련하여 자리토씨의 일부를 격조사와 후치사로 나누는 생성문법적 기술 방식이나, 자리토씨의 일부를 인구어의 관사나 특수조사로 간주하는 분석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또한 격조사의 실현을 형상에 따라 수지적 형상 개념이 한국어의 자유어순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한국어의 성분 자유로운 배열을 효과적이고 명시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정(2011)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살펴볼 때 첫째, 조사 체계와 항목 선정이 적절한지의 문제, 둘째, '조사'를 어떻게 처리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있는지의 문제, 셋째, 조사를 제시·설명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사 자체만을 단독형으로 제시할지와 확장된 'N-조사'형태로 제시할지에 관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해야 효율적인지 한국어 교육에서 꾸준히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한국어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비교

3.1. 선정된 교재의 성격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을 살펴보기 전에 선정된 한국어 교재는 어떤 교재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세 가지와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여섯 종 한국어 교재의 구체적 구성과 내용, 성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여섯 가지 교재는 모두 한국 대학교 혹은 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이므로 모두 외국인(중국인)학습자 대상으로 편찬한 교재이다. 본고에서는 선정된 교재 중 초·중급 교재만 보기로 한다.

우선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세 종류를 살펴보겠다.

<표 4>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성격

	『이화 한국어』	『연세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출판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연세대학교 출판사	한글 파크
출판연도	2010년~2012년	2007년~2013년	2010년
권수[13]	7권	8권	4권
교육 대상	외국인 학습자	한국어를 배우려는 성인 교포와 외국인 학습자	학문 목적 외국인 학습자
사용 언어	중국어+한국어[14]	중국어+한국어[15]	한국어
구성	음운 부분 주제별 본문 및 문법 듣기지문 및 정답 단어 찾아보기	주제별 본문 및 문법 듣기지문 문법/어휘 색인	주제별 본문 및 문법 듣기지문 모범답안 어휘색인

13) 『이화한국어』는 총 9권이므로 선정된 초·중급은 1(1~2), 2(1~2), 3(1~2), 4권까지 선정되어 있다. 『연세한국어』는 총 12권이므로 1(1~2), 2(1~2), 3(1~2), 4(1~2)권까지 선정되어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총 4권이므로 초급(1~2), 중급(1~2)까지만 있어서 총 4권을 선정하였다.

14) 『이화 한국어』는 1권 (1-2) , 2권 (1-2) , 3권 (1-2) 는 한국어판, 중국어판, 영어판과 일본어판 있다. 여기서는 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연구를 전개하려고 1권 (1-2) , 2권 (1-2) , 3권 (1-2) 는 중국어판으로 선정하였고 4~6권은 한국어판만 출판되었고 한국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와 같이 선정된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성격을 제시해 보았다. 비교적 『이화 한국어』와 『연세 한국어』는 권수가 많은 편이다. 이화 한국어』는 초·중급만 7권이 있고,『연세 한국어』는 초·중급은 8권이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총 권수는 4권이다. 『이화 한국어』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의 교육 대상은 외국인 학습자이고 『연세 한국어』는 명확히 성인 교포와 외국인 학습자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편찬한 한국어 교재였지만 『이화 한국어』와 『연세 한국어』의 사용 언어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한국어만 사용하고 있다. 교재의 구성으로 볼 때는 큰 차이 없이 '음운, 본문 및 문법' 두 가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성격을 가진 한국어 교재의 특징과 목적을 살펴보겠다.

<표 5 >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구성

	『이화 한국어』	『연세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목적	한국어를 쉽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하고 외국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학습자는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필수적인 어휘와 문법, 문화와 사고방식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학문 목적 학습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므로 일반 목적 학습자의 교육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교재 특성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통합교재이며 연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 언어 기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면서도 특히 말하기 능력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하였다. -종합교재이므로 학습자의 말하기, 듣기, 쓰기 능력을 균형적으로 발전	-대학 생활과 관계된 주제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구어적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문적 언어 특징을 잘

어판을 선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초·중급(1~4) 교재만 선정하였다.

15) 『연세 한국어』는 1권 (1-2) , 2권 (1-2) , 3권 (1-2) 는 한국어판, 중국어판, 영어판과 일본어판 있다. 여기서는 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연구 전개하려고 1권 (1-2) , 2권 (1-2) , 3권 (1-2) 는 중국어판으로 선정하였고 4 (1-2) , 5 (1-2) , 6 (1-2) 권은 한국어판만 출판되어서 한국어판을 선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초·중급(1~4) 교재만 선정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강화하도록 고안되었다. -Try it 부분을 활용해서 외국인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담화 순서와 문장의 핵심어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시키기 위해 연습 활동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의 중심으로 삼고 흥미있는 주제와 배경으로 대화문을 만들어서 대화 연습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하도록 한다.	보여주는 담화나 어휘를 수록하였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기능을 학업 활동과 학습 기술 습득과 연관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자기 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전략을 포함시켰다.
단원 구성	Part1, Part2 준비합시다 (문법, 연습), 말해 봅시다 (Try it, 대화, 표현, 확장) , Part3 들어봅시다. (표현) 읽고 써봅시다. 문화 알아보기, 문학 맛보기	본문 대화, 어휘, 문법 연습, 과제1-2, 대화 번역본 (중국어) , 문법 설명(중국어) 5과마다 '정리해 봅시다.' 한 과 있다. (정리, 제임스가 본 한국)	생각해봅시다. (문제 제시, 대화 내용, 어휘, 발음) 문법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표 5>에서 보듯이 『이화 한국어』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의사소통 능력에 더 중점으로 두고 『연세한국어』는 한국어 문화와 한국 사고방식의 능력의 향상에 역점으로 기울인다. 세 교재는 모두 주제 중심인 통합교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화 한국어』와 『연세 한국어』는 종합 한국어 능력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구어 능력을 치중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단원에서 '듣고 말하기' 가 따로 구성되어 있다. 『연세 한국어』는 본문의 번역문을 따로 제시하였다. 또한 특이하게 한국 문화는 '제임스'라는 외국인의 눈으로 소개하였다. 『이화 한국어』는 문법, 연습, 활동 등외에도 문화 소개 부분도 있고 '문학 맛보기'에서 한국의 대표적 시나 문학 작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소개를 하였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겠다. 우선 선정된 교재의 성격을 살펴보자고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6>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성격

	『표준한국어 (수정판) 』	『기초 한국어 (수정판) 』	『한국어 (수정판) 』
출판사	북경대학교 출판사	흑룡강 조선민족 출판사	민족 출판사
출판연도	2011년	2009년	2008년
권수	3권	4권	3권
교육 대상	대학교 한국어학, 학습자	대학교 한국어학, 초보 한국어 학습자	대학교 한국어 전공 학습자, 한국어학원 학습자, 독학 학습자
사용언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구성	음운 부분 주제별 본문 및 문법 항목 연습 문제의 정답 단어 찾아보기	음운 부분 본문 부분 단어 찾아보기 과별 문법 찾아보기 한국어 전문용어와 중국어 대조	음운 부분 주제별 본문 및 문법 본문의 번역문 연습 정답 문법 찾아보기 단어 찾아보기

선정된 중국 한국어 교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작성되어 있고 중국 대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재들이다. 세 가지 교재는 모두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한국어(수정판)』만 한국어 학원[16] 학습자 혹은 독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사용언어는 모두 중국어이고 설명방법도 중국어로 되어 있다. 중국 교재의 구성은 한국 교재와 같이 '음운, 본문 및 문법' 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 중에 『한국어(수정판)』은 유일한 '본문의 번역문' 부분이 있는 교재였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중국에서 '한국어 학원'은 대학교 외부에사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7 >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구성

	『표준한국어 (수정판) 』	『기초한국어 (수정판) 』	『한국어 (수정판) 』
교재 목적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 어휘, 문법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초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학습하면서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한 한국어 교재이다.	학습자의 한국어 구어 수준과 서술 능력을 높이면서 학습자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번역 능력 등을 향상시킨다.
교재 특성	한국어 능력 시험의 수준에 맞춰서 교재를 만들었다.	한국어의 기본 구성으로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여 쓰기 한계성까지 강조하였다.	문법 부분은 한국어 현재 규범 문법에 따라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해서 제시하였다. 또한 문법을 제시하면서 초보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한국어 문법을 이해하기 시키려고 최대한 중국어와 대조해서 제시하였다.
단원 구성	본문 단어 발음 기본어법 (基本語法) 연습 보충 단어 속담 한마디	본문 단어 어법해설 (語法解說) 연습 보충 단어	본문 본문 단어 발음 어휘 및 관용어 어법 (語法)과 관용형 (慣用型) 연습 보충 단어

중국 교재는 한국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표준 한국어(수정판)』은 '음운, 어휘, 문법' 세 가지로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교육을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기초 한국어(수정판)』은 한국문화를 학습시킬 목적이 있다고 하였고 구어 능력만 아니라 말하기·읽기·쓰기·듣기 등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을 균형적으로 키우고자 집필되었다.

각 교재의 특성을 보면 『표준 한국어(수정판)』은 학습 단계를 교려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의 단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기초 한국어(수정판)』은 문법을 설명하면서 오류를 피하기 위해 용법의 한계성까지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어(수정판)』은 초급 학습자들이 모국어 영향 받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어 표준 문법과 중국어 대응 하면서 작성하였다. 양국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언어 습관이 다르지만 초·중급 단계에서는 중국어와 대응하면서 구성되어야 거부감도 줄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 가지 중국 교재는 단원 구성은 거의 비슷하지만 『표준 한국어(수정판)』에서 과의 마지막 내용은 '속담 한마디'로 한국 속담을 한 마디 제시하여 중국어로 설명을 해주고 중국에서 비슷한 속담이 있으면 제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한국 문화 중의 한 부분이고 양국 문화 대조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수정판)』은 단원구성이 세밀하게 되어 있고 문법에 들어가기 전에 '관용어'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들이 학습 단계에서 필요하지만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법 항목들은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수정판)1』(2008: 100)에서 '정신이 없다', '별일' '그러면' 같은 관용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성으로 학습자들이 쉽게 외워서 말하기 능력에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선정된 한·중 한국어 교재를 분석해 보면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끼리도 차이가 나고 한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끼리도 차이가 난다.

여섯 종 교재간의 유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대상은 모두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삼는다.[17)]

둘째, 모두 한국 대학교 혹은 중국 대학교(혹은 언어교육기관)에서 사용 중인 교재이다.

셋째, 본문 내용은 모두 주제 중심으로 되어 있다.

넷째, 학습자들의 한국어 읽기·듣기·쓰기·말하기 능력을 향상 시키는 목적으로 기술되었지만 교재마다 중점을 두는 부분은 조금씩 다르다.

다섯째,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까지 기술하고 있다.

한·중 한국어 교재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교재가 중국 교재보다 자주 개정하고 출판한다. 2010년도 한계라고 보면 한국 교재는 세 가지 중 『연세 한국어』만 2010년 이전 2007년도에 출판되었다. 중국 교재는 『표준 한국어(수정판)』만 2010년도 이후에 2011년도에 출판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교재는 중구교재보다 더 빨리 개정된다.

둘째, 한국 교재의 권수는 훨씬 많다. 보면 한국 교재는 한 권이 두껍지 않고 권수는 많다. 『이화 한국어』는 초급부터 중급까지는 총 7권이 있다. 중국

1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에서는 교육 대상인 '외국인'이라는 대상은 중국인 학습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교재는 한 권에 두꺼우면서 권수는 많지 않다. 『표준 한국어(수정판)』는 초급부터 중급까지 2권밖에 안 된다. 같은 한 단계의 교육 내용은 비슷한 경우에는 중국 교재의 내용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음운 부분의 포함여부이다. 한국 교재 중 『이화 한국어』만 '음운' 부분이 있다. 중국 교재 세 가지도 모두 '음운' 부분이 들어가 있다.

넷째, 사용언어의 차이다. 양국 한국어 교재의 대상이 같은 상황이므로 한국 교재는 주로 중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단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만 한국어로 기술되어 있다. 중국 교재는 설명은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다.

다섯째, 한국 교재는 주로 말하기, 듣기 능력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화 한국어』는 단원 구성에서 '말해 봅시다', '들어 봅시다' 등 말하기와 듣기 중심인 활동이 있다. 중국 교재는 한국 교재와 같은 말하기, 듣기 활동이 없기 때문에 문법 중심이다.

지금까지 이 여섯 종 교재를 모두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한·중 한국어 교재에 있어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고 한다.

3.2. 한국어 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모국어 체계와 한국어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문장 구성은 '주어+서술어+목적어'인 SOV 구성이다. 중국어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인 SVO 구성이다. 교착어인 한국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고, 문장에서 문법적인 의미는 조사와 어미에 의하여 표현된다. 그러나 첨가어인 중국어는 조사나 어미가 붙는 형태변화가 없고 문법적인 의미는 주로 어순과 허사(虛詞)에 의해서 표현된다(範開泰, 張亞軍 2002: 231).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가. 왕동이 숙희에게 꽃을 주었다. 王东给淑熙花。
나. 숙희에게 왕동이 꽃을 주었다. 王东给淑熙花。
다. 꽃을 숙희에게 왕동이 주었다. 王东给淑熙花。

김경선(2008： 71)

(2) 가. 王东给淑熙花。 왕동이 숙희에게 꽃을 주었다.
나. 淑熙给王东花。 숙희가 왕둥에게 꽃을 주었다.

한국어는 (1가)의 주어 '왕동이', 간접목적어' 숙희에게', 직접목적어 '꽃을'은 어순을 (1나)와 (1다)처럼 바꾸어도 주어,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는 (1가)와 같다. 왜냐하면 주격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 '-에게' 가 문장 성분을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어 (2가)에서 주어 '왕동이', 간접목적어 '숙희에게'는 어순을 바꾸면 (2나)처럼 주어가 '숙희'가 되고 간접목적어가 '왕동'으로 행동 주체와 동작을 받은 대상이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가 있으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조사를 학습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조사를 중심으로 기존 한국어 교재를 비교·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한국어 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를 일대일로 찾는 것보다는 조사의 실제 문장에서의 의미를 고려하여 대응 중국어 표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조사의 체계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한국어 단일조사에 대응 중국어 표현을 살펴본 후 한국어 조사 간 결합형의 대응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겠다. 한국어 단일조사는 대응 중국어 표현이 하나만 있을 수 있고,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 가. 동생의 노트가 아닙니다.
不是弟弟的笔记本。 - 구조조사 '的'
나. 어머니의 구두
妈妈的皮鞋 - 구조조사 '的'

(『기초한국어(수정판)』： 67~6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가. 책을 동생에게 주었다.

书给弟弟了。 - 개사 '给'

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即使被老虎咬住了只要打起精神就能活命。 - 개사 '被'

다. 남편에게 문제가변호사를 찾아갔다.

丈夫出问题了, 所以去找律师了。 - ø

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现在对于我们来说需要的是钱。 - 관용형 '对于…来说'

(동양효2012: 37) [18]

(3)의 조사 '-의'의 대응 중국어 표현은 구조조사 '的' 하나밖에 없다. (4)의 조사 '-에게'의 대응 중국어 표현은 여러 가지이다. (4가)의 '-에게'의 대응 중국어 표현은 개사 '给' 이지만, (4나)에서 대응 중국어 표현은 개사 '被'이다. (4다)는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는 경우이다. (4라)의 '-에게'는 대응 중국어 표현은 관용형 '对于…来说'이다. (3)와 (4)를 보면 한국어 조사는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일인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다. 또한 한국어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의 경우는 대응 중국어 표현이 완전히 없다.

한국어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대응 중국어 표현을 살펴볼 때 단일조사는 첫째, 조사에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는 경우, 둘째, 조사에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일인 경우, 셋째, 조사에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다인 경우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한국어 단일조사의 대응 중국어 표현을 정확히 제시해 보기 위해 먼저 이윤정(2002)과 시대고시기획(2010)[19]을 참조하여 초·중급 단계에서 학습해야 조사 목록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20]

---

18) 동양효(2012)는 이희자·이종희(2010)을 참조하여 예시(13)으로 제시하였는데 여기는 그대로 가져왔음.

19) 시대고시기획(2010)에서 출판된 『TOPIK중급』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 위해 작성된 복습 책이다. 이 책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 나올 만한 어휘와 기본 이론을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전모의고사를 수록하여 효과적인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20) 단일조사의 대응 중국어 표현을 살펴본 후에 조사 간 결합형을 살펴보기 위해 단일조사의 목록은 최대한 자세하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초·중급 단계에서 조사 학습 목록

'-을/를, -이/가, -의, -은/는, -에, -으로, -도, -에서, -과/와, -에게/께/한테, -이나, -만, -에서(부터), -까지, -보다, -마다, -밖에, -이라도, -대로, -처럼, -만큼, -이나, -에게서/한테서, -이야, -이야말로, -조차, -이랑, -하고, -나마, -든지, -마저, -커녕

선정된 목록을 가지고 다음으로 동양효(2012: 39)와 국립국어원(2005,『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용법 편)』[21])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을 정리하였다.

한국어 조사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전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표 8 > 한국어 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는 경우

한국어 조사		중국어 표현
주격조사	-이/가, 께서	Ø
목적격 조사	-을/를	Ø
보조사	-은/는	Ø

주격조사 '-이/가'는 주어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고 새 화제를 도입하는 기능도 있지만 대응 중국어 표현이 아예 없는 경우이다. 보조사 '-은/는'도 '화제, 대조'의 기능을 가진 모두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다.

다음은 한국어 단일조사에 대응 중국어 표현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이다.

21)『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용법 편)』(2005)는 국립국어원에서 편찬된 한국어 문법 사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쉽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문법을 정리하였다. 이 책은 표제어 900여 개, 가표제어 500여 개의 문법 형태에 대한 의미, 결합 정보, 사용 맥락, 오류 양상 등을 일일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법 사전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표 9 > 한국어 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일인 경우

한국어 조사		대응 중국어 표현	대응 중국어 품사
관형격 조사	-의	'的'	조사 (助詞)
부사격 조사	-와/과, -하고, -랑	'和'	개사 (介詞)
	-부터	'從'	개사
보조사	-조차	'連'	개사
	-에게서/한테서	'從… (得到)'	개사
	-커녕	'-别說 (是) …就連'	관용형
	-야말로	'唯有, 才是'	부사
	-(이)라든지	'~什么的'	관용형
	-야/이야	'…呢'	조사
	-만큼	'跟…一样'	관용형
	-보다	'…比…'	동사
	-처럼	'像, 好像'	동사
	-마다	'每…'	부사
	-밖에	'(除了)…只(有)'	부사
	-대로	'按着…'	관용형

물론 한국어에서 용법을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대응 중국어 표현은 하나만인 경우이다. 관형격조사 '-의'는 '소속, 소유'라는 의미 있고, '행위의 대상이나 목표'의미도 있고, '속성이나 수량을 한정하거나 같은 자격임' 등의 의미를 가지지만[22] 대응 중국어 표현은 단 '的' 하나 밖에 없다.

<표 9>에서 단일조사의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다인 경우이다. 조사의 의미·기능에 따라 대응 중국어 표현이 달라지면서 대응 중국어 표현의 품사도 다르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조사가 한국어의 의미·기능이 있지만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는 경우는 제시하지 않았다.[23]

22)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용법편』, pp.822를 '-의' 참조.
23) 예를 들면 어떤 한국어 조사가 5개의 의미를 가지는데 대응 중국어 표현이 3개가 있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표 10 > 한국어 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다인 경우

한국어 조사			대응 중국어 표현	대응 중국어 품사
부사격 조사	-에게/한테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	‘給’	개사
		행위의 진행 방향이나 목적지임	‘朝，向’	개사
		행위를 하는 주체임	‘被’	개사
		행위를 가하는 사람임	‘從’	개사
		행위를 하도록 시킴을 받는 사람	‘讓’	동사
		어떠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사람	‘對’	개사
		느낌을 가지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 주체	‘（對于）…來說’	관용형
		비교의 대상이나 기준임	‘和，跟’	개사
	-로	지점이나 목적지로 가거나 방향을 향함	‘朝，向，往’	개사
		한 곳을 통하여 이동함，경로	‘通過，經過’	동사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한 방향을 나타냄	‘在’	개사
		재료，원료	‘用’	개사
		도구，수단，방법	‘用’	개사
		자격，신분，명성	‘作爲，以’	개사
		원인，이유	‘因爲’	개사
		시간적 범위	'在，于'	개사
	-에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거나 위치하는 곳	‘在’	동사

경우 나머지 2개는 제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	'给, 向'	동사
		비교의 대상	'和, 与'	연사
		원인, 이유	'因为'	접속사
		도구나 수단	'用'	동사
	-에서	장소	'在'	개사
		출발점, 기준점	'從, 自, 由'	개사
		행위의 근거나 이유임	'以'	개사
	-더러	묻거나 청하는 행위가 미치는 사람임	'對, 向'	개사
		어떤 행위를 하도록 시킴을 받는 대상임	'叫, 讓'	동사
보조사	-도	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포함하거나 더함	'也'	부사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 다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음	'連'	개사
		기대에 못 미치나 받아들임	'也, 都'	부사
		어느 정도가 기대한 것보다 많거나 적음	'(就)连, 也'	부사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나열할 때	'也…也…; 又…又…'	연사
	-만	'유일함'	'只, 光'	부사
		수량을 최소로 제한함	'只, 就'	부사
		강조의 뜻을 덧붙임	'只'	부사
	-나	둘 이상의 대상을 나열하거나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함	'或者'	부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괜찮은 정도의 차선임	'…什么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음	‘無論，不管’	연사
		어느 정도가 되어야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음	'得是'	
		어느 것을 막론하고 양쪽 모두를 포함함을 나타낸다.	‘無論…(还是)’	연사
		수량이나 정도를 어림잡는 뜻	'差不多'	형용사
	-까지	범위의 끝，지점이나 한계를 나타낸다.	‘到…爲止’	관용형
		보통으로 생각되는 정도를 넘어선 극단적인 상황임	'就连'	개사
		어떤 상황 이상의 것이 더 해지거나 더 나아감	'就连…；又…'	관용형
	-라도	마음에 썩 들지는 않으나 그런대로 괜찮음	‘就算’	연사
		어떤 경우라도 마찬가지임	‘無論，不管’	연사
		강조	'就算，即使'	접속사
	-치고 (는)	앞 명사의 경우 예외 없이 모두 뒤의 내용과 같음	‘就像（是）’	동사
		앞 명사에 대해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과 뒤의 내용이 좀 다름	‘作爲’	동사

지금까지 한국어 단일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해 보았다. 위의 표에서 보았듯이 같은 조사라도 대응 중국어 표현이 다르다. 그렇다면 조사 간 결합형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조사 간 결합형은 복잡하기 때문에 동양효(2012)와 다른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분류하였다.

첫째，한국어 조사 간 결합형 중의 한국어 단일조사가 대응 중국어 표현끼리 그대로 결합하는 경우이다. 다음의 네 가지 경우가 속한다. 첫째，조사의 의미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일인 경우끼리의 결합이다. 둘째，조사의 의미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일인 경우와 조사에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는 경우의 결합이다. 셋째，조사에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는 경우끼리의 결합이다. 이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세 가지의 분류를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6) 가. 그와의 관계
和他的关系

『이화 한국어3-2: 134』

나. 목요일 1시부터는 언제든지 괜찮아요.
星期四一点起随时都可以。

『이화 한국어2-1: 50』

다. 할머니께서는 된장, 고추장, 간장의 좋은 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奶奶(给我们)说明了大酱，辣椒酱，酱油的好处。

『연세 한국어2-1: 78』

(6가)의 조사 간 결합형 '-와의'는 단일조사 '-와' 대응 중국어 표현 '和'와 단일조사 '-의' 대응 중국어 표현 '的'와 그대로 결합하여 '和…的'을 뜻한다. (6나)의 조사 간 결합형 '-부터는'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일인 단일조사 '-부터'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는 단일조사 '-는'과가 결합하였다. 그러면 조사 '-부터'의 대응 중국어 표현 '從'만 뜻한다. 또한 (6다)에서는 '-께서는'인 경우는 단일조사 '-께서'와 단일조사 '-는'은 모두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기 때문에 조사 간 결합형 역시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다.

둘째, 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일인 경우와 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다인 경우의 결합이나 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다인 경우끼리의 결합이다. 이러한 경우는 조사 간 결합형의 구성 요소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일로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대응 중국어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7) 가. 유원지에 각지로부터 온 관광객이 모여들었다.
旅游景点云集了从各地来的游客。

『한국어(수정판)2: 20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한국에서의 첫 번째 생일이어서 친구들을 많이 초대했어요.
因为是在韩国的第一个生日所以邀请了很多朋友。
『연세 한국어2-1: 129』

다. 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昨天见到了高中毕业20年的朋友们。
『연세 한국어4-1: 59』

라.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 두어야겠다.
只干到这个月为止要辞职了。
『연세 한국어3-2: 317』

(7가)와 (7나)는 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일인 경우'와 '일대다인 경우'의 결합이다. '(7가)와 (7나)'는 '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다인 경우'끼리의 결합이다. (7가)는 조사 '-로'와 '-부터'를 결합하여 대응 중국어 표현은 문장의 맥락에 따라 조사 '-부터'의 대응 중국어 표현 '从'만 나타낸다. (7나)는 조사 '-에서'와 조사 '-의'의 대응 중국어 표현을 결합하여 나타낸다. (7다)는 조사 결합 현상 '-만에'는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다. 이론적으로 단일조사 '-만'과 단일조사 '-에'의 대응 중국어 표현을 결합하여야 하지만 문장의 맥락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다. 또한 (7라)는 조사'-까지'의 의미인 '범위의 끝, 지점이나 한계'의 대응 중국어 표현은 '到…爲止', 조사 '-만'은 '유일함'의 의미로 중국어 부사 '只, 光'에 대응하여 '只…为止'의 표현으로 나타낸다.

셋째, 둘 이상의 단일조사 간의 결합 현상과 대응 중국어 표현이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대부분은 문장의 맥락에 따라 대응 중국어 표현을 찾아야 한다.

(8) 가. 잔디 구장에서만이 그의 진정한 실력을 알 수 있다.
只有在草地球场才能知道他们真正的实力。
고영근 · 구본관(2008: 16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사람은 빵으로만은 살 수 없다.

人不能只靠面包活着。

고영근 · 구본관(2008: 167)

다. 소리만으로도 이해하기에 충분한 공연이었다.

（这是一场）只通过声音的理解也很充分的演出。

『이화 한국어3-1: 30』

위와 같은 예를 보면 조사 간 결합형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정한 규칙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8가)의 조사 간 결합형 '-에서만이'는 단일조사'-에서, -만'의 대응 중국어 표현이 그대로 결합하여 '只有在'뜻으로 나타낸다. 조사 '-이'는 워낙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기 때문에 결합해도 의미가 없다. (8나)는 (8가)와 같은 경우인데 대응 중국어 표현이 있는 조사 두 개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는 조사 하나와의 결합 현상이다. (8다)는 중국어 표현은 '只…通过'로 나타낸다. 단일조사 '-만'와 단일조사 '-으로'의 대응 중국어 표현을 결합하였다. 하지만 대응 중국어 표현이 일대다인 조사 '-도'의 중국어 표현은 이 문장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다.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은 원래 복잡한 부분이고 대응 중국어 표현도 일대일로 대응하기가 힘들다. 특히 조사 간 결합형의 대응 중국어 표현은 주로 담화의 상황이나 문장의 맥락을 따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3. 교재 분석 및 비교

본장에서는 조사와 조사 결합 현상을 명칭, 배열순서, 설명 방법의 세 가지를 나누어 분석하겠다. 한국어 교재의 조사와 조사 결합 현상의 기술 방식을 찾아 교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3.1. 조사의 명칭

여섯 종 교재에서 제시된 조사와 조사 결합 현상은 학습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준다. 교재마다 제시된 항목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교재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선정된 여섯 종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조사의 목록을 선정하겠다. 이 목록에서 제시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을 바탕으로 비교 분석을 진행하겠다. 우선 선정된 조사 목록을 제시하겠다.

(9) 선정된 한국어 교재에서 공통적인 조사의 목록:

조사: -은/는, -이/가, -을/를, -에, -와/과/하고. -(으)로, -부터…까지, -에서, -도, -만, -에게/한테, -보다, -의, -(이)나

조사 결합 현상: -에는, -(으)로는, -에서는, -에도, -께서는, -에서도. -(으)로도, -에게는/한테는

(9)에서 제시된 목록과 같이 여섯 종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낸 조사는 총 14개, 조사 결합 현상은 총 8개이다. 이를 가지고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와 조사 결합 현상의 명칭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 교재에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1 > 한국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명칭

조사	『이화 한국어』	『연세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은/는	조사	조사	
-이/가	조사	주격조사	
-을/를	조사	빈어 (賓語) 조사	
-에	조사	시지 (時地) 조사	
-와/과/하고	조사	조사	
-(으)로	조사	조사	
-부터…까지	조사		
-에서	조사	시지 (時地) 조사	
-도	조사	조사	
-만	조사	조사	
-에게/한테	조사	조사	
-보다	조사	조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조사		
-(이)나		조사	
-에는			
-(으)로는			
-에서는			
-에도			
-께서는			
-에서도			
-(으)로도			
-에게/한테는		조사	

빈 칸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칭도 제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한국 교재는 조사의 명칭을 많이 제시하지 않았다. 『이화 한국어』는 거의 '조사'라고만 제시하고 있다. 『연세 한국어』는 조사 '-이/가'가 기능에 따라 '주격조사'로, 조사'-을/를'은 용법에 따라 중국식 명칭은 '빈격(賓語) 조사[24]'라고 하였다. '빈격조사'라는 것은 원래 중국어 문법 체계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한국어 혹은 일본어의 '목적격조사'를 설명할 때 중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새로 만들어 놓은 말이다.

또한 『연세 한국어』는 조사 '-에서, -에'는 '시지(時地) 조사'라고 명명되어 있다. 시간(時間) 혹은 지점(地點) 명사와 연결해서 쓰는 조사 여서 이러한 용법에 따라서 '시지(時地) 조사'라는 명칭이 붙었다. '시지조사'라는 명칭은 중국어 문법 체계에 없고 한국어 문법 체계에도 없는 명칭이었는데 초급 학습자들이 조사 '-에서'의 용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명칭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명칭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

한국어 교육에서 '메타언어(metalanguage)'는 언어를 설명하는 언어로서 문법에서의 메타언어는 해당언어의 문법 혹은 문법 규칙을 설명하는 도구적 언어이다.[25] Borg(1999 : 96 - 98)는 외국어로서 영어 문법 교육에서 메타언어인 문법용어가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반

24) '빈격조사'는 중국어 빈어(賓語)의 위치에서 쓰는 조사라고 표시한다. 빈어는 한국어 목적어와 같이 동작을 받은 대상을 말한다.

25) Berman (1979) 는 문법 규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언어를 메타언어라고 지칭하고, 전문용어 (technical terms) 로서 명사, 동사, 절, 주어 등과 같이 문법을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용어, 학위 전문 용어 (subtechnical vocabulary) 로 나누었다. (박혜림 외 2008 : 97 제인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면에 박혜림 외(2008 : 98)와 Hutchison(1987)는 언어에 대해 쉽게 말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문법에 대한 메타언어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문법 용어는 문법적 요소를 지칭하는 지름길의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이관규(2005)는 학습자의 사고력, 교수의 용이성 등을 위해 문법 메타언어의 사용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한국 교재 『이화 한국어』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메타언어인 조사의 명칭을 노출시키지 않는다.『연세 한국어』교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위해 맞추어서 제시하였다. 교육 과정에서 '메타언어'를 노출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미 많이 논쟁들이 있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교재에서 문법 항목의 명칭은 노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교재에서의 조사 명칭을 살펴보겠다.

<표 12 > 중국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명칭

조사	『표준한국어(수정판)』	『기초 한국어(수정판)』	『한국어(수정판)』
-은/는	첨의조사	첨의조사	보조사
-이/가	주격조사	주격조사	주격조사
-을/를	목적격조사	목적격조사	목적격조사
-에		장소조사/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
-와/과/하고		접속조사	부사격조사
-(으)로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
-부터…까지		첨의조사	보조사
-에서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
-도	첨의조사	첨의조사	보조사
-만	첨의조사	첨의조사	보조사
-에게/한테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
-보다	첨의조사	첨의조사	부사격조사
-의	속격조사	속격조사	관형격조사
-(이)나	조사	첨의조사	보조사/접속조사
-에는		복합조사	복합조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으)로는			복합조사
-에서는			
-에도		복합조사	복합조사
-께서는	주격조사	주격조사	주격조사
-에서도			
-(으)로도			
-에게/한테는			

중국 교재는 동일 교재에서도 조사 명칭을 제시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조사 간 결합형을 제대로 제시한 경우는 매우 적은 편이다.

『표준 한국어(수정판)』는 조사 '-은/는'을 의미에 따라 '첨의 조사'라고 제시하였다. '첨의 조사'는 '보조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조사로 '체언 뒤에 나타나며 의미를 첨가해 주거나 보조해 주는 조사'로 정의하였다[26]. 물론 이 명칭도 한국어 혹은 일본어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사이었다. 조사 '-의, -이/가'는 기능에 따라 '속격조사', '주격조사'로 한국 문법 용어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 한국어(수정판)』의 조사 명칭은 다소 혼란이 많다. 조사 '-은/는'은 의미에 따라 '첨의 조사'라고 중국어 명칭을 가지고, '-에서'는 부사격조사'라고 하고, 조사 '-에'는 '장소조사'라고 제시하였다. '장소조사'라는 명칭도 중국어로 한국어 혹은 일본어의 '장소명사와 함께 사용하는 조사'를 설명할 때 그 용법에 따라 만들어진 명칭이었다. 그러므로 명칭의 선정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메타언어로서 문법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수정판)』는 동일한 기준을 따라서 조사 명칭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표 11>과 <표 12>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의 기술 방식이 차이가 많이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 『한국어 실용 어법 사전』 (2009, 외국어 교학연구 출판사) 에서 첨의조사의 정의를 그대로 번역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첫째. 한국 교재에 비해서 중국 교재에서 문법 메타언어가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는 조사의 명칭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한·중 교재에서 나타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은 일정한 기준이 보이지 않다.『표준 한국어(수정판)』교재를 보면 중국어 '첨의조사'라는 명칭이 있고 '주격조사', '목적격조사'라는 명칭도 있다. 특히『연세 한국어』교재에서 '시지 (時地) 조사'라는 한국어 문법이나 중국어 문법에서 모두 없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셋째, 한국 교재에 비하면 중국 교재에서는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을 많이 제시한 편이다. 중국 『기초 한국어(수정판)』, 『한국어(수정판)』은 사용 빈도수가 높은[27]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을 일부만 제시하였지만 한국 교재에서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초·중급 학습 단계에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제시 명칭에 관해 우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한국어 학교 문법에 따라서 정할지 조사의 기능·의미에 따라서 정할지 혹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용법에 따라 정할지 동일 교재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보여야 한다.

또한 만약 독특한 명칭을 꼭 제시해야 한다면 반드시 보충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연세 한국어』 교재에서 '시지 (時地) 조사'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경우인데 이 명칭은 '-에'의 용법에 따라 항상 지점명사와 시간명사를 붙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으로 사용하면 학습자들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혀주어야 한다. 마지막에 초급단계에서 조사'-의' 경우에는 '관형격조사'라고 제시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러한 조사의 명칭을 제시할 때 한국어 문법에 따라서 '관형격조사'라고 제시하면서 중국식 명칭을 하나 더 붙여주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3.3.2. 조사의 제시 순서

조사를 가르칠 때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일정한 순서로 제시해야 한다. 난이도, 사용 빈도 등은 조사의 배열 순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27) 한윤정 (2010) 에서 제시한 '세종 국어 말뭉치의 조사 결합 유형과 빈도'를 참조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황정숙(1991)은 조사를 기능 중심의 조사와 의미 중심의 조사로 분류하였고 이런 구분이 조사의 용이성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능 중심의 조사들이 가장 많이 쓰이므로 다른 조사의 학습보다 더 용이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들을 1단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2단계에서는 기능과 의미를 함께 제시하면 이해가 쉬운 조사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앞서의 세단계의 조사 수업을 내용을 토대로 조사의 겹침 현상과 일반 담화 상에서의 조사의 생략 현상을 다룬다.[28)]

조련희(2006)은 난이도와 사용빈도를 함께 고려하여 조사 학습 순서를 제시하였다. 2002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출판된『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는 한국어 교재, 교과서, 교양, 문학, 신문, 구어 등 다양한 한국어 재료에서 150만 어절을 구축하여 단어, 고유명사, 조사, 어미 등 4가지 유형의 어휘들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된 조사는 총 184개로 조사의 빈도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29)]

<표 13>『현대어 사용 빈도 조사』(2002)에서 제시된 조사 순서(일부)

순위	비도	항목	순위	빈도	항목
1	72437	-의/관	27	2429	-보다/부
2	71370	-을/목	28	2379	-처럼/부
3	57750	-에/부	29	2373	-이나/접
4	50894	-이/주	30	1630	-나/접
5	49507	-이다/지	31	1597	-로/목
6	45348	-는/보	32	1417	-서/부
7	41429	-를/목	33	1254	-나/보
8	35606	-은/보	34	1059	-로서/부
9	32530	-가/주	35	886	-이나/보
10	23812	-도/보	36	876	-밖에/보
11	21559	-으로/부	37	863	-으로써/부
12	19693	-에서/부	38	787	-라/인

28) 조련희(2006) 참조.
29) 조련희(2006)에서 제시된 조사의 사용 빈도는 도표로 총 184개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1~50순위까지만 제시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3	15511	-로/부	39	776	-한테/부
14	9914	-과/접	40	688	-마다/보
15	9732	-고/인	41	671	-으로서/부
16	6471	-와/접	42	653	-이라/인
17	6057	-만/보	43	603	-로부터/부
18	4949	-이/보	44	600	-뿐/보
19	4769	-에게/부	45	561	-라고/인
20	4435	-과/부	46	551	-라도/보
21	4283	-까지/보	47	535	-께서/주
22	3906	-ㄴ/보	48	500	-대로/보
23	3439	-요/보	49	480	-이라고/인용
24	3414	-와/부	50	479	-이란/보
25	2548	-부터/보	51-184	중략	
26	2539	-가/보			

주: 주격조사, ’ :목적격조사, 인: 인용격조사, 지: 긍정 지정사, 보: 보격조사, 부: 부사격조사, 조: 보조사, 관: 관형격조사, 호: 호격조사, 접: 접속조사

본장에서는 한·중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의 학습 순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선정된 여섯 종 한국어 교재 중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조사의 목록에 따른 조사의 순서를 정리면 다음과 같다.

<표 14 > 한국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제시 순서

	『이화 한국어』	『연세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	-은/는(화제)	-은/는(주제/대조)	N은/는
2	-이/가	-이/가	N이/가
3	-을/를	-에는	N의
4	-에(방향/위치)	-도	N도
5	-하고, -과/와	-에(지점)	N에서
6	-(으)로(방향)	-하고	N하고 N
7	-에(시간)	-을/를	-에는
8	-부터~까지	-에서	-(으)로는
9	-에서(장소)	-에서는	N로/으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	-도	-에(시간)	N에게/한테
11	-은/는(대조)	-부터…까지	N에
12	-만	-과/와	N부터…N까지
13	-에게, -한테	-에게/한테/께	N은/는
14	-보다	-으로/로(방향/원인/자격)	N로/으로
15	-의	-(이)나/나	-에도
16	-(으)로(수단)	-만	-에서도
17	-(이)나	-보다	-에서는
18	-(으)로는	-께서는	-을/를
19	-에는	-에게는/한테는	N만
20	-에서는	-에도	-께서는
21	-에도	-으로/로	-(으)로도
22	-께서는	-의	N보다
23	-에서도	-(으)로는	-에게는/한테는
24	-(으)로도	-에서도	
25	-에게는/한테는	-(으)로도	

<표 14>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서는 조사 '-이/가, '-은/는'은 모두 제일 앞에서 나타나고 3위부터는 조금 차이가 난다. 편의상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자고 한다. 1~10까지는 상위로 정하고, 11~15까지는 중간으로 정하고, 16~25까지는 하위로 정한다.

『이화 한국어』는 1~10 상위 조사 항목에서 주로 조사 '-이/가', '-을/를', '-에', '-(으)로'등 격조사를 제시하고 있고, 11~15 중간에서 주로 보조사 '-은/는', '-만', '-보다'로 되어 있다. 16~25하위 항목 중에서 주로 '-(으)로는', '-에는', '-에서는', '-에도', '-께서는', '-에서도' 등 조사 간 결합형을 제시하고 있다.

『연세 한국어』는 앞부분에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을 혼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조사 '-은/는', '-이/가'를 제시하고 조사 '-에'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조사 간 결합형 '-에는'을 제시하였다. 중간 부분에서는 '-부터…까지', '-에게/한테/께', '-(으)로' 격조사로 되어 있고 뒤 부분에서는 보조사 '-만', '-보다'와 '-께서는', '-에게는/한테는', '-에도'등 조사 간 결합형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끼워서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앞부분에서 단일조사만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조사들이 섞여서 제시되어 있다. 보조사 '-은/는'을 제시하고 주격조사 '-이/가'를 제시한 후에 격조사 '-의'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보조사 '-도'를 제시하였다. 조사 '-에'를 제시하지 않고 바로 '-에는'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시 순서는 다소 혼란스럽다. 중간 부분에서는 격조사 '-에게/한테', '-에', '-부터…까지', '-(으)로'로 제시되어 있고 뒤 부분에서는 주로 조사 간 결합형 '-에도', '-에서도', '-에서는'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용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목적격조사 '-을/를'의 제시 순서의 차이가 심하다.

『이화 한국어』와 『연세 한국어』는 3위와 7위를 앞부분에서 제시하였는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거의 끝에서 18위에 제시하고 있다. 조사 '-이/가, -은/는, -을/를'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아예 없는 조사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수는 상당히 높은데 초·중급 교육 단계에서 어떤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 학습을 할 수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제시 순서에 관한 각 교재의 특징을 보면 한국 교재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두 조사'-은/는(주제)'은 1위로 제시하고 조사'-이/가'는 2위로 제시한다.

둘째, 같은 조사는 의미에 따라 학습 선후 순서에 따라 따로따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화 한국어』에서 조사 '-은/는(화제)'은 1위로 제시하고 '-은/는(대조)'은 11위로 제시하고 있다. 『연세 한국어』는 조사 '-에(지점)'은 5위에 제시하였고 '-에(시간)'은 10위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조사 간 결합형은 일정한 순서 없이 제시하고 있다. 『연세 한국어』는 조사 간 결합형 '-에는' 같이 단일조사 '-에'가 제시한적 없는데 바로 '-에는'을 제시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도 조사 '-은/는'만 제시해 놓고 조사 '-에'를 제시하지 않은데 바로 조사 결합인 '-에는'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하면 중국 한국어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5 > 중국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제시 순서

	『표준한국어(수정판)』	『기초 한국어(수정판)』	『한국어(수정판)』
1	-은/는	-도	-가/이
2	-을/를	-의	-는/은
3	-에서(장소)	-에(장소/시간/목적지)	-의
4	-와/과/하고	-와/과	-도
5	-에는	-은/는	-을/를
6	-에	-가/이/께서	-에(장소/목적지)
7	-부터…까지	-에도	-에서(장소)
8	-에게	-에는	-에는
9	-의	-부터…까지	-에(시간)
10	-도	-에서(장소/범주)	-와/과
11	-만	-에게/께/한테	-부터
12	-에도	-(으)로(방향/수단/방법/도구/양태)	-에(기준)
13	-이/가	-보다	-으로(방향/방법/수단)
14	-께서/께서는/께	-만(강조)	-에(전화번호 읽을 때)
15	-에서(출발지)	-(이)나(선택/포함)	-에게
16	-보다	-에(상태/수단/재료)	-만
17	-으로(방향/목적지/수단/공구)	-(으)로(기준/재료)	-께서는
18	-(이)나(추측/대충)	-에서(는)	-에서는
19	-에(기준)	-(으)로(신분/변화의 결과/이유)	-(이)나(의문사와 같이 쓰임/선택)
20	-(으)로(변화)	-을/를	-보다
21	-(이)나(양보/선택)	-(이)나(강조)	-에도
22	-에서는	-에서도	-(으)로는
23	-에서도	-에게는	-까지
24	-에게는	-(으)로는	-에(원인)
25	-(으)로(자격/신분)	-(으)로도	-에서도
26	-(으)로는		-(으)로도
27	-으로도		-에게는

<표 15>와 같이 중국 교재에서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제시 순서가 다소 혼란스럽지만 한국 교재보다는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조사 '-(으)로'의 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표준 한국어(수정판)』은 조사 '-(으)로'는 '방향/목적지/수단/공구'의 용법을 17위에 제시하고 있고 '변화'의 용법은 20위에 제시하고 있고 25위에는 '자격/신분'의 용법으로 제시하였다. 『기초 한국어(수정판)』도 12위에 조사 '-(으)로'는 '방향/수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방법/도구/양태'의 용법으로 제시하고 있고, 용법은 '기준/재료'는 17위에 제시하고 있는데, 19위에 '-(으)로'의 '신분/변화의 결과/이유'용법을 제시하였다.

『표준 한국어(수정판)』는 조사 제시 순서를 보면 일정한 기준이 없다. 편찬자가 주관적으로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사용 빈도수가 높은 주격조사 '-이/가'를 13위에 제시하고 오히려 접속조사 '-와/과/하고'는 4위에 제시하였다. 조사 '-은/는'을 제시해 놓고, 조사 '-에'를 제시하지 않고 조사간 결합형 '-에는'을 제시하였다.

『기초 한국어(수정판)』는 1위에 보조사 '-도'를 제시하고 격조사와 조사 결합 현상을 제시하였다. 3위에 격조사 '-에'를 제시하고 5위에 보조사'-은/는'을 제시한 후에 조사 간 결합형 '-에는'을 제시하였다. 단일조사를 먼저 제시한 후에 조사 간 결합형을 제시하는 해야 한다. 중간부분에서 주로 '-에게/께/한테', '-(으)로', '-부터…까지' 등 격조사를 제시하고 있다. 뒤 부분에서는 격조사 '-에', '-(으)로', '-을/를'을 제시하고, 22위부터 '-에서도', '-에게는' '-(으)로는', '-(으)로도'조사 간 결합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수정판)』은 한국 교재와 비슷하게 깔끔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교재는 앞부분에서 '-가/이', '-는/은'을 먼저 제시하고, 조사 '-의', '-을/를', '-에(장소/목적지)'등 격조사를 제시하고 있다. 중간 부분에서도 '-부터', '-에(기준), '-(으)로(방향/방법/수단)등 격조사를 제시하고 있고, 뒤 부분에서는 보조사'-만', '-(이)나', '-보다'와 조사 간 결합형 '-께서는', '-에서는', '-에도', '-(으)로는' 등을 섞어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수정판)』 교재의 14번 조사 '-에'의 제시 내용을 보면 '전화번호 읽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국 전화번호 '010-1234-5678'을 읽을 때는 발음은' 공일공의 일이삼사의 오육칠팔'로 읽는다. 숫자 중간의 '-'의 발음은 '에'라고 발음하고 있지만 '-의'가 옳다.

<표 14>와 <표 15>를 보면 한·중 한국어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제시 순서가 많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몇 가지가 있다. 양국 교재의 조사 제시 순서의 기준이 없다. 교재의 앞부분에 조사가 용법별로 나누어 순서대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조사 간 결합형은 항상 뒤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 세 가지 공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통점을 가지지만 차이점도 많이 보인다.

첫째, 한국 교재에서는 주로 조사 '-이/가', '-은/는'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 교재에서는 앞부분에 일치하지 않고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표준 한국어(수정판)』의 첫 조사는 보조사'-은/는'으로 제시하고 있고, 『기초 한국어(수정판)』의 첫 조사는 보조사'-도'를 제시하였고, 『한국어(수정판)』교재의 첫 조사는 주격조사 '-가/이'로 되어 있다.

둘째, 한 조사가 다양한 용법이 있는 경우는 학습 단계에 맞추어 따로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 교재보다 중국 교재가 더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조사 '-(으)로'를 보면 『이화 한국어』는 6위에 조사 '-(으)로(방향)'을 제시하고 16위에 조사 '-(으)로(수단)'을 두 가지 의미로 제시하였다.『기초 한국어(수정판)』에서는 12위에 조사 '-(으)로(방향/수단/방법/도구/양태)를 제시하고, 17위에 '-(으)로(기준/재료)'를 제시하고 19위에 '-(으)로(신분/변화의 결과/이유)'를 더 세밀하게 분류하여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셋째, 한국 교재는 사용 빈도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먼저 제시하고, 중국 교재는 보조사를 우선 제시하거나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해의 편의에 맞추어 주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서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중국어 대응 표현이 없는 '-이/가', '-은/는', '-을/를'등 조사를 먼저 제시하는 것과 보조사를 먼저 제시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더 효율적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3.3.3. 조사의 설명 방법

변흔(2010)에서는 조사의 교육 방안을 제안하면서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로는, 교육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교육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는,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한 문법 항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하는 것과 실제 사용할 때 오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문법의 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명이다.

본 절에서는 한국 교재와 중국 교재에서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에 관한 설명 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양국 교재의 설명 방법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겠다.

<표 16 > 한국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설명

	조사	『이화 한국어』	『연세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	-은/는	문장의 화제를 표시한다	문장의 주제 혹은 화제를 표시한다	
		대조	대조, 강조	
2	-이/가	문장의 주어를 표시한다	문장의 주어를 표시한다.	
3	-을/를	문장의 빈어(賓語)를 표시한다.	문장의 빈어(賓語)를 표시한다	
4	-에	행위의 방향이나 목적지	사람 혹은 물건이 있는 곳	
		명사 뒤에 지점이나 위치를 표시한다.	동작이나 상황은 발생한 시간	
5	-와/과/하고	둘 이상의 사물을 열거함.	두개 혹은 이상의 명사를 연결해 준다.	
6	-(으)로	처소 혹은 방위명사 뒤에서 어떤 지점이나 방향을 말한다	처소(處所)명사 뒤에서 쓰이고 방향을 표시한다	
		행위의 도구 수단 방법 등	방식, 원인, 이유, 자격 등 표시한다	
7	-부터~까지	시간 혹은 처소명사 뒤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지점 혹은 종점을 말한다		
8	-에서	동작을 진행하는 장소	동작을 발생한 지점	
9	-도	의미의 추가	같은 것을 혹은 비슷한 것을 열거하다.	
10	-만	배제, 특정한 범위를 한정함	명사 혹은 부사와 연결한 조사	
11	-에게/한테	사람이나 동물명사 뒤에서 동작의 대상을 말한다.	구체적 동작과 연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2	-보다	비교의 대상	비교	
13	-의	소속관계를 말한다.	소속, 소유	
14	-(이)나	둘 이상의 사물이 나열하다. 만족하지 않지만 괜찮다는 정도	두개 혹은 이상을 열거	
15	-에는			
16	-(으)로는			
17	-에서는			
18	-에도			
19	-께서는			
20	-에서도	순서대로 조사 두 개 이상 연속 쓸 수 있다.'-에도, -에만, -에서도, -에서만, -(으)로도, -(으)로만'등		
21	-(으)로도			
22	-에게는/한테는			

『이화 한국어』와 『연세 한국어』는 문법을 모두 중국어로 설명하고 서술 방식도 중국식 '…를 표시한다(表示…)'라고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보조사 '-은/는'을 제시할 때 '문장의 주제 혹은 화제를 표시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교재에서 제시된 중국어 '表示句子的主题或话题'를 그대로 번역만 한 것이다.

또한 『이화 한국어』와 『연세 한국어』는 한국어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해 설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화 한국어』교재에서는 '-에서도'를 제시할 때 조사의 결합에 대한 '조사는 두 개 이상 연속 쓸 수 있다'라고 한마디만 설명을 하였다. 한국 교재의 문법 설명을 보면 주로 문법의 기능과 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 한계성, 주의점 등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재는 설명이 아무것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교재는 한국어로 서술되어 있고 문법을 제시할 때도 문법 항목을 제시해 놓고 예문과 연습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화 한국어』와 『연세 한국어』는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설명 방법에 있어 차이점도 많다. 조사 '-에'를 살펴보면 『이화 한국어』교재에서는 '방향, 목적지, 지점 혹은 위치'라고 설명 되어 있는데 같은 '-에' 조사가 『연세 한국어』교재에서는 '사람 혹은 물건이 있는 곳, 동작이나 상황을 발생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다. 두 교재는 모두 초급 에서 '-에'를 제시하였는데 초급 단계를 맞추어 용법 중 위와 같이 두 가지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화 한국어』에서의 '-에서' 조사의 설명 방법을 보면 '동작 진행하는 장소'라고 하였다. 실제로 한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인식을 거의 없는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들은 조사 '-에'와 '-에서'를 많이 혼동한다. 구체적 제대로 설명해 주어야 오류를 최소화 시킨다. 『이화 한국어』는 조사 '-에'를 '지점, 위치'라고 설명하고 있고, '-에서'는 '장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점', '위치', '장소'는 중국어로 번역하면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진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설명을 보면 두 조사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연세 한국어』는 조사 '-에'는 '사람 혹은 물건이 있는 곳'과 '시간' 두 가지 용법으로 설명하였는데, 조사 '-에서'는 '동작을 발생한 지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런 방식이 학습자들이 쉽게 용법을 기억할 수 있게 한다고 본다. 또한 조사 '-와/과/하고'는 '병열 열거'인데 『이화 한국어』는 '둘 이상의 사물을 열거함'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병열관계라는 말 자체를 설명하지 않았다. 『연세 한국어』는 '두 개 혹은 이상의 명사를 연결해 준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중국어 '연사'를 연상하지만 '병열, 열거'뜻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술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조사 '-만'의 설명 방법은 『이화 한국어』에서 '배제, 특정한 범위를 한정함'으로 아주 불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보면 바로 용법과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연상되지 않는다. 『연세 한국어』에서는 조사 '-만'은 '명사 혹은 부사와 연결한 조사'라고 설명을 하였다. 이는 사용 환경만 제시하였고, 이 조사의 용법, 의미 혹은 한계를 말해 주지 않았다. 또한 조사 '-에게/한테'도 『연세 한국어』교재에서 '구체적 동작과 연결'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데 이는 설명이 아니라 사용 환경만 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 교재에서 조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한다.

<표 17 > 중국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설명

	조사	『표준 한국어(수정판)』	『기초 한국어(수정판)』	『한국어(수정판)』
1	-은/는	체언 뒤에 진술한 주제를 말한다	체언 뒤에 화제를 표시하고 대조, 강조하는 뜻	설명하는 대상, 서술의 주체, 대비, 강조하는 용도
		명사, 대명사 뒤에 문장의 주제로 만들어 준다		
2	-이/가	명사, 대명사 뒤에 주어를 표시한다	체언 뒤에 동작, 상태, 성질의 주체를 표시한다.	행동, 상태 혹은 성질의 주체
3	-을/를	명사 뒤에 명사를 문장의 빈어(목적어)로 만든다	이동 동사(가다/오다 등) 결합해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표시하거나 경유지와 동작을 진행한 처소를 표시한다.	동작 직접 관련한 대상
4	-에	시간을 표시한다.	사물이나 사람이 존재하는 장소	사물이나 사람이 존재하는 장소.
			장소의 단어 뒤에 목적지를 표시한다.	동작을 진행한 목적지.
		수량의 기준	시간명사 뒤에 동작을 진행하는 시간을 표시한다.	시간체언 뒤에 동작이나 행위, 상태를 발생한 시간을 표시한다.
			심리상태 혹은 인지상태	기준이 되는 대상 혹은 단위
			행동에 의거한 수단, 재료	전화번호를 읽을 때 많이 쓰임
			무정명사 뒤에 의미를 추가함	원인
5	-와/과/하고	명사 대명사 뒤에 '다른 것과 같이'라는 뜻	병렬 대상을 표시한다.	공동 행동하는 대상
		명사를 연결하는 조사		병열
				비교의 대상
6	-(으)로	동작을 진행하는 방향 및 목적지	체언 뒤에 행동의 방향 목표에 대해 표시한다.	동작의 방향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단, 도구, 재료 등	체언 뒤에 행동의 수단, 방법, 도구를 표시한다.	
		변화의 대상	행동의 방식, 양태	
			기준, 표준	
			재료. 원료	행위의 방식, 방법, 수단, 도구 등
			신분, 자격, 명성 등	
			변화의 결과	
			원인, 이유	
7	-부터…까지	시간명사 뒤에 시간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한다.	동작이 시작하는 시간과 완료된 시간	
8	-에서	동작을 진행하는 장소	근거, 이유	동작을 진행한 장소.
				출발한 장소
9	-도	포함하다	체언 뒤에 포함한 뜻	포함
10	-만	한정하다	명사, 부사, 어미 뒤에서 강조하는 뜻	한계
11	-에게/한테	동작에 관련된 대상을 표시한다.	유정명사 뒤의 동작에 관련된 간접 대상	동작에 관련된 간접 대상
12	-보다	명사 뒤에 비교의 대상을 말한다.	체언 뒤에 비교의 대상	비교
13	-의	명사, 대명사 뒤에 영속관계를 표시한다.	명사 간의 연결하는 조사, 소속 관계를 표시한다.	체언 뒤에 소속, 소유, 속성 등을 표시한다.
14	-(이)나	추측, 대충, 혹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다	누구, 언제 등 의문사 뒤에 '아무튼' 뜻이다
		양보/선택	포함	둘 이상 같은 자격의 사물은 그중에 하나를 택하다.
15	-에는		사간 혹은 지점의 대조, 강조	강조, 대비
16	-(으)로는			'…근거로는…'
17	-에서는		단체 주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8	-에도		'…도 같다'	
19	-께서는			
20	-에서도			
21	-(으)로도			
22	-에게는/한테는		강조	

중국 교재의 문법 설명은 한국 교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라서 물론 설명은 모두 중국어로 기술되어 있다.

보조사 '-은/는' 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전혀 없는 조사이므로 사실은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조사이다. 『기초 한국어(수정판)』에서 조사 '-은/는' 제시할 때 '화제, 주제'의 용법을 제시하고 '대조'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어(수정판)』에서는 조사 '-은/는'의 문법 용법은 '화제, 대조'를 한꺼번에 모두 제시해 주었다. 사용 빈도로 볼 때 조사 '-은/는'은 초급에서 '화제, 주제'라는 용법이 먼저 제시해 주고 이 다음으로 '대조'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은/는'이 두 개 용법을 같이 제시하면 초급 학습자들에게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단계별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 '-에'를 보면 『표준 한국어(수정판)』는 '시간, 수량의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하였지만 '-에'의 제일 중요한 용법 중 하나인 '지점, 장소'의 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사와 관련하여 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는 사용 빈도에 따라 순서대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 간 결합형의 설명이 아주 부족하고 정확하지 않다. 세 가지 교재에서 모두 조사 간 결합형을 제시하고 설명해 주지 않았다. '조사와 조사가 연속 사용할 수 있다'는 기본적 설명조차 없었다. 또한 『기초 한국어(수정판)』에서는 제시된 '-에서는' 같이 설명은 '단체주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에서는' 앞에 지점 명사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는 큰소리로 말하지 마세요.'라는 문장이 있어서 조사 결합인 '-에서는'은 '단체주어'라고 아니다.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과 관련하여 대한 한·중 한국어 교재의 차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교재는 주로 조사의 사용 환경을 제시하고 있고, 중국 교재는 용법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사 '-만'을 보면 『연세 한국어』(2007: 291)에서는 '명사 혹은 부사와 연결한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기가 힘들고 이 조사의 사용 환경만 제시한 것이다. 『한국어(수정판)』(2008: 193)에서는 조사 '-만'은 한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전면적이지 않지만 조사 '-만'의 용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둘째, 같은 초·중급단계 교재였지만 한국 교재는 조사가 주로 사용하는 용법을 골라서 설명하고 있는데 중국 교재는 조사의 용법을 한꺼번에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부담되고 효율적 학습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사 '-(으)로'의 용법이 아주 다양한 조사이므로 중급 단계에서도 계속 학습할 필요가 있는 조사이다. 『이화 한국어』(2010: 73)에서는 조사 '-(으)로'의 용법을 두 가지다. '처소 혹은 방위명사 뒤에서 어떤 지점이나 방향을 말한다.'와 '행위의 도구, 수단, 방법 등.'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중국 교재 『기초 한국어(수정판)』(2009: 160)은 보면 조사 '-(으)로'의 용법은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용법을 제시하여 모든 용법에 대해 익숙해지면 사용 오류를 줄일 수 있겠지만 초·중급 단계에서 한 조사의 용법을 한꺼번에 제시해버리면 학습자들이 처음부터 부담을 가지므로 더 혼란스럽다.

셋째, 조사 간 결합형은 한국 교재에서 거의 설명하지 않고 형태만 제시하고 있다. 중국 교재는 전면적 설명도 용법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도 충실하지 않다. 한국 교재는 『이화 한국어』(2010: 98)에서만 조사 결합 '-에서도'를 제시할 때 '순서대로 조사 두 개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고, 다른 두 교재에서는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 교재는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제시해주시 않았다. 단지 『기초 한국어(수정판)』(2009: 102)에서만 조사 간 결합형 '-에는', '-에서는', '-에도', '-에게는/한테는'의 용법만 제시해 주었다.

양국 교재의 문법 설명은 아주 부족하여 학습자들이 초급부터 확실히 문법을 파악하지 못하고 나중에 혼동을 많이 허고 오류도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설명은 물론 용법과 함께 조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사용 환경, 사용의 한계, 특수 경우 등을 초급부터 같이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한 바람직한 기술 방안

지금까지 본고에서 선정한 대표적 한·중 한국어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 제시 순서, 설명 방법의 기술을 비교 분석하였다. 여섯 가지 한국어 교재를 분석해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재는 말하기 중심으로 되어 있고 수업 활동 내용은 중국 교재보다 훨씬 다양하다. 『이화 한국어』와 같이 본문 내용이 자연스러운 구어적 종결어미 '-아/어/여요'를 사용하고 예를 들면, 『이화 한국어1-2』(2010: 23)에서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사과 있어요?'와 같이 구어적 어미로 되어 있고, 중국 교재 『표준 한국어(수정판)』은 문어적 종결어미 'ㅂ/습니다' 어미를 사용한다. 『표준 한국어(수정판)1』(2011: 71)에서 ' 어서 오십시오.', '빵하고 우유가 있습니까?'와 같이 문어적 어미로 되어 있다. 또한 문법 연습 활동은 한국 교재는 말하기와 듣기 중심으로 되어 있고, 중국 교재는 문법, 쓰기 연습이 위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양국 교재는 조사에 관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조사를 제시할 때 명칭의 선정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연세 한국어』에서 조사 '-이/가'는 한국어 문법 명칭인 '주격조사'라고 하면서, 조사 '-을/를'은 중국어 명칭인 '빈격조사'라고 하였다. 한국어 문법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국어 명칭을 사용하거나 일정한 기준이 없다. 조사 간 결합형은 제시하기만 하고 명칭이나 설명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않았다. 한국 교재에서는 조사 간 결합형의 용법이 거의 제시하지 않았고 중국 교재에서는 조사 간 결합형에 관한 설명도 거의 없다.

둘째, 조사의 제시순서는 일정한 기준으로 배열하고 제시해야 학습자들이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데, 중국 교재는 혼란스러운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사용 빈도로 보면 조사 '-은/는', '이/가'는 앞에서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한국 교재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순서를 제시하였지만 중국 교재는 이러한 기본 원칙도 보이지 않고 혼란이 많았다.

셋째, 조사 간 결합형은 한국어 문법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단일 조사를 제시하지 않고 바로 조사 간 결합형만 나타난 경우가 있다. 한국 교재 『외국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 '-에'를 제시하지 않고, 바로 조사 간 결합형 '-에는'을 제시하였다. 중국 교재 『표준 한국어(수정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인다.

넷째, 조사 간 결합형을 처음에 제시할 때 결합 원리와 결합 순서를 학습자에게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화 한국어』 같이 '조사는 순서대로 두 개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는 했지만 실제 조사 간 결합형에 관한 예가 없다.

본장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교재 기술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앞에서도 분석했듯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 제시 순서, 설명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4.1. 조사의 명칭

한국어 교재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목표와 교수·학습 내용 및 교수 방법론, 평가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교육과정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이용되는 자료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육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통일 기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진숙 1999: 31). 그리하여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법 항목이 어떻게 제시 되고 있는지는 학습자들에게 영향이 매우 크다.

외국어 학습은 기초 어휘, 문법 등을 바탕으로 능숙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을 일관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모국어로 편찬된 한국어교재에서 모국어와 대조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모국어 명칭을 같이 제시해주거나 설명에서 조사의 용법과 의미를 다시 설명해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물론 한국어 학교문법에 따라 제시하면 초급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 조사의 명칭은 메타언어로 초급부터 인식을 시켜야 나중에 중·고급 들어가도 문법 학습에 큰 어려움이 없게 된다고 본다.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은 명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교재 내에 혼란이 많고, 각 교재 간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화 한국어』는 전체 조사를 모두 '조사'라는 명칭만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 제시는 각 조사의 기능·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보인다. 특히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한 명칭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조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지 의미의 변화가 있는지 등에 관해 학습자들이 의문이 생기고 혼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연세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사'라고 명칭을 제시하고 조사 '-이/가'는 '주격조사'로, 조사 '-을/를'은 중국어 명칭 '빈어조사'로, 조사 '-에', '-에서'는 용법에 따라 '시지조사'라고 명칭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의 용법에 따라 '-에', '-에서'는 쉽게 기억하기 위해 '시지조사'라는 명칭을 해주는 것과 같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특히 초급 단계에서 더 쉽게 학습할 수도 있지만 조사 명칭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기준으로 명칭을 제시하고 중국어 명칭이나 용법에 관한 '시지조사'같은 명칭을 더 붙여 주는 것이 학습자들이 학습하기가 좋다고 본다. 또한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에서는 전체 조사의 명칭을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보면 『표준 한국어(수정판)』와 『기초 한국어(수정판)』에서는 같은 문제점을 보인다. 조사 '-은/는'은 중국어 명칭인 '첨의조사'라고 하고, 조사 '-이/가'는 '주격조사'라는 한국 문법 명칭으로 되어 있다. 한 교재 안에 명칭에 대한 기준이 없이 혼란스럽다. 『표준 한국어(수정판)』에서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기초 한국어(수정판)』에서 조사 간 결합형인 '-에는', '-에도'는 '복합조사'라는 명칭을 제시하였다.

『한국어(수정판)』에서는 한국 문법 명칭을 주로 제시하므로 조사 간 결합형인 '-에는', '-(으)로는', '-에도'만은 '복합조사'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교 문법에 따라 우선 한국어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분류한다. 격조사는 다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보격조사, 관현격조사, 서술격조사, 부사격조사, 호격조사로 분류된다. 또한 조사 간 결합형은 본고에서는 조사가 두 개 이상 결합 하는 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우의 형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조사의 명칭에 대한 기준으로 왕미(2010)에서는 조사의 명칭은 한국어 학교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국어 교육 문법 체계와 기술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 현장에서 중국어 문법 용어와 대조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을 제시할 때도 최대한 중국어 용어를 대조하여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업 현장에서도 교사가 메타언어로 학습자들을 인식을 시켜야겠지만 교재에서 바로 제시하고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제시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에 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여섯 종 교재에서 공통으로 나타낸 조사 목록에 대해 한국어 교재에서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표 18 >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명칭의 개선 방안

조사	한국어 조사의 명칭	중국식 보충 설명
-은/는	보조사	'저는 xx입니다.'
-이/가	주격조사	'xx이/가 아닙니다.'
-을/를	목적격조사	빈어조사/주어 'xx을 V하다'.
-에	부사격조사	시간/장소조사
-와/과/하고	접속조사	연사(連詞), 병열 관계
-(으)로	부사격조사	'XX(방법)으로','XX(수단)으로','XX(재료)로'
-부터…까지	부사격조사	(시간/지점)시작 및 종결 조사
-에서	부사격조사	시지(時地)조사
-도	보조사	첨의조사
-만	보조사	첨의조사
-에게/한테	부사격조사	(받는)대상(對象)조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다	보조사	첨의조사
-의	관형격조사	구조조사
-(이)나	보조사	첨의조사
-에는	조사 간 결합형	부사격조사와 보조사 -는의 결합, 강조
-(으)로는	조사 간 결합형	부사격조사와 보조사 -는의 결합, 강조
-에서는	조사 간 결합형	부사격조사와 보조사 -는의 결합, 강조/단체주어
-에도	조사 간 결합형	부사격조사와 보조사 -도의 결합, 포함
-께서는	조사 간 결합형	주격조사와 보조사 -는의 결합, 강조
-에서도	조사 간 결합형	부사격조사와 보조사 -도의 결합, 포함
-(으)로도	조사 간 결합형	부사격조사와 보조사 -도의 결합, 포함
-에게는/한테는	조사 간 결합형	부사격조사와 보조사 -는의 결합, 강조

<표 18>와 같이 중국식 명칭은 주로 용법에 관한 설명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 조사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는 조사의 경우는 명칭으로만 제시하면 초급 학습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으니 '-은/는', '-이/가', '-을/를'은 같은 경우는 기본 문형에서 제시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석주연(2005)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형(sentence pattern)은 학습자에게는 목표 언어의 문장에 대한 구체적 형상의 역할을 하며 교사에게는 문장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보았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는 문형의 의미가 크므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조사의 형식도 기본 문형을 바탕으로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도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를 위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을 교재에서 기본 문형으로 제시해주는 방식이 효과적인 이다. 하지만 '-을/를'같은 경우에는 '빈어조사'라는 중국식 명칭을 같이 제시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국어 명칭은 초·중급 학습자들이 명칭을 보자마자 바로 중국어의 의미를 통해 한국어 조사의 용법에 대해 연상이 되므로 쉽게 기억하게 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2. 조사의 제시 순서

외국어를 학습할 때 교재의 문법 제시 순서는 학습자에게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서는 옳은 순서로 조사를 가르쳐야 외국인 학습자들이 조사의 사용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이지영 1996). 여러 기준을 따라 조사의 제시 순서를 정할 수 있지만 종합하여 사용 빈도에 따라 순서를 제시하는 논의가 제일 많았다.

오수진(1998)은 조사 학습 순서를 제시하였는데 사용 빈도에 따라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접속조사의 순서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체계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이, -는, -은, -께서(주어표시), -를, -을(목적어표시), -에(장소지정, 이동의 목적지, 시간표현), -에게, -한테, -께, -에(행동의 목표 대상), -에서(장소지정), -에서, -에게서, -한테서(출발점), -로/으로(방향, 수단, 자격, 원인), -의, -와, -과, -하고(접속), -와, -과, -하고(접속), -와, -과, -하고(비교 · 동반)'으로 제시하였다.

왕미(2010)은 사용 빈도에 따라 조사의 학습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의, -이/가, -을/를, -은/는, -도, -만, -에, -에서, -로/으로, -에게, -와/과, -부터…까지, -보다, -처럼, -나/이나, -하고, -한테, -같이, -에게서, -든지/이든지, -한테서'로 제시하였다.

또한 조련희(2006)은 교재를 분석한 후에 사용 빈도와 용이성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한국어 조사의 학습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표 19 > 사용 빈도와 용이성에 따라 조사 학습 순서(조련희2006:100~101)

	사용빈도에 따라	용이성에 따라
1	-의	-하고
2	-을/를	-밖에
3	-에	-랑/이랑
4	-이/가	-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은/는	-도
6	-도	-보다
7	-(으)로	-와/과
8	-에서	-로부터/으로부터
9	-와/과	-대로
10	-고	-마다
11	-만	-부터
12	-에게	-까지
13	-까지	-야말로/이야말로
14	-부터	-든지/이든지
15	-보다/보다는	-한테
16	-처럼	-나/이나
17	-이/이나	-만
18	-(으)로서	-라도/이라도
19	-밖에	-커녕
20	-로써/으로써	-조차

<표 19>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사용 빈도와 용이성에 따라 조사의 학습 순서가 다소 차이가 난다. 사용 빈도에서는 관형격조사 '-의'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목적격조사 '-을/를'을 제시하였다.

용이성 측면에서 보면 보조사 '-하고'를 먼저 제시하고 보조사 '-밖에'를 제시하였다. 앞에서 말했듯이 중국인 학습들에게 한국어 보조사와 같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있는 조사가 비교적으로 학습하기가 쉽다. 이를 바탕으로 조련희(2006)은 결론적으로 사용 빈도와 용이성을 함께 고려하여 초·중급 학습단계에서 조사의 제시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 조련희(2006)에서 제시된 조사의 제시 순서

'-의, -이/가(주어), -은/는(주제), -을/를(목적어), -하고, -밖에, -도, -이/가(서술어가 '아니다, 되다'의 보어임), -에(장소), -에는, -은/는(대조, 강조), -로/으로(방향, 수단, 방법, 도구 등), -까지, -을/를(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에 나타나는 경우), -나/이나(명사와 명사를 연결한다), -만, -와/과, -에게, -부터, -보다/보다는, -처럼, -에(이동의 뜻을 갖지 않은 서술어가 나타내는 장소), -로/으로(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나/이나(보조사의 경우), -에(시간이나 사물의 단위 그리고 셈의 기준을 나타낸다), -로/으로(자격), -로/으로(경유, 과정, 변화), -나/이나(수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에 붙는 경우)'

앞에 제시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2)에서 보듯이 조련희(2006)에서도 주로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조사의 학습 순서를 정하였다. 또한 사용 빈도를 고려하면서 학습 용이성이 아니고 기본 문형을 기준으로 조사 학습 순서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

정지은(2004: 13)은 사용 빈도에 따라 조사의 제시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표 20 > 사용 빈도에 따라 한국어 조사의 제시 순서

순 서	조사의 종류
1	-의, -이/가
2	-을/를, -은/는
3	-도, -만, -에, -에서, -(으)로, -에게
4	-와/과, -까지, -부터

<표 20>는 조사의 사용 빈도에 따라서 순서를 제시한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바탕으로 종합해 보면 바람직한 조사의 제시 순서는 기본적으로 사용 빈도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조사 간 결합형의 순서에 대한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알아보자 한윤정(2010: 21)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표 21 > 세종 문어, 구어 말뭉치 내 상위 15위조사 결합 항목 비교

순위	문어 말뭉치	구어 말뭉치
1	-에는	-에는
2	-에서는	-에서는
3	-에도	-에도
4	-로는	-엔
5	-에서도	-로는
6	-과는	-에서도
7	-에게는	-보다는
8	-보다는	-까지는
9	-과의	-한테는
10	-에서의	-로도
11	-로서의	-로만
12	-만을	-에선
13	-보다도	-에두
14	-만이	-로부터
15	-로도	-부터는

<표 21>과 같이 조사 간 결합형 중의 문어 말뭉치에서 '-에는, -에서는, -에도'가 가장 빈도수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 '-로는, -에서도, -보다는, -로도' 등은 제시되고 있다. 제시된 문어 말뭉치에서는 '-에게는'과 같은 용법인 구어 말뭉치에서 제시된 '-한테는' 순위 차이가 많았다. 이는 언어 환경과 맥락에 따라 구어에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을 많이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어 말뭉치에서는 축약된 조사 간 결합형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에는'은 '-엔'으로 사용하고 있고, '-에서는'은 '-에선'으로 사용하고 있고, '-에도'는 '-에두'로 사용하고 있다. 구어에서는 조사가 많이 생략되므로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 간 결합형의 제시 순서를 정하려면 문어 말뭉치 순서에 따라야 하고 구어 말뭉치 순서를 참조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금까지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제시 순서에 관한 기준을 보여주었다. 이를 종합하면 중국인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바람직한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제시 순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국 사람이 일상생활에서의 조사 사용 빈도수를 조사 제시 순서의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는 조사'-은/는', '-이/가', '-을/를'은 사용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앞에서 제시해 주어야 한다.

셋째, 조사 간 결합형을 제시할 때 말뭉치 순서가 고려 기준이지만 단일 조사를 제시한 후에 조사 간 결합형을 제시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단일 조사를 제시하고 단일 조사의 의미를 바탕으로 조사 간 결합형의 의미·기능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단일 조사와 대조하여 조사 간 결합형과 단일 조사의 의미 차이도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사 간 결합형 '-에는'을 제시하기 전에 반드시 단일조사 '-에'와 보조사 '-은/는'을 제시한 후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조건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30]의 제시한다.

< 표 22 > 한국어 조사의 바람직한 제시 순서

순위	조사	순위	조사
1	-이/가	7	-에서
2	-을/를	8	-(으)로
3	-은/는	9	-에게/께
4	-의	10	-와/과/하고
5	-도	11	-까지/부터
6	-에		

30)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제시 순서는 본고에서 선정된 한국어 교재에서 공통적 나타난 조사 간 결합형만 제시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표 23 > 한국어 조사 간 결합형의 바람직한 제시 순서

순위	조사 간 결합형
1	-에는
2	-에서는
3	-에도
4	-로는
5	-에서도
6	-에게는
7	-로도
8	-께서도

이러한 순서를 참조 기준으로 하여 선정된 각 한국어 교재에서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순서를 살펴보겠다.

한국 교재인 『이화 한국어』는 조사 제시 순사의 1위는 '-은/는(화제)', 2위는 '-이/가', 3위는 '-을/를'을 제시하였다. 문형과 사용 빈도에 따라 주격 조사 '-이/가'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맞는데 이 교재는 1위와 2위는 제시 순서를 뒤바뀌었다. 『이화 한국어』의 4위에 제시된 조사는 문형과 사용 빈도에 따른 순서와 같이 '-에(위치)'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5위에 접속조사 '-하고/와/과'를 제시하였다. 이 것도 문형과 사용 빈도에 따른 순서와 일치하지 않다. 조사 간 결합형의 순서를 보면 『이화 한국어』에서 1위에 제시된 조사 간 결합형은 '-(으)로는'이고, 2위는 '-에는', 3위는 '-에도'이었다. 이러한 순서도 문형과 사용 빈도에 따른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표 22>과 같이 말뭉치 순서를 보면 조사 간 결합형은 '-에는'의 빈도수가 제일 높았다. 그러므로 단일 조사 '-에'와 '-은/는'을 제시한 후에 조사 결합형인 '-에는'은 제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연세 한국어』에서는 1위에 '-은/는(주제/대조)'를 제시하고 2위에 '-이/가', 3위에 바로 조사 간 결합형인 '-에는'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순서는 문형과 사용 빈도에 따른 바람직한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단일 조사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조사 간 결합형을 제시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의 제시 순서는 1위는 '-은/는', 2위는 '-이/가'를 제시하고 3위에 '-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순서도 문형과 사용 빈도에 따른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 교재에서의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한 제시 순서는 먼저 문형과 사용 빈도에 따른 순서와 일치하게 '-에는'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으)로는'을 제시하였다. 말뭉치 순서를 따르면 조사 간 결합형의 2위는 '-에서는'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하지만 이 교재에서의 제시 순서와 말뭉치 빈도 순서는 일치하지 않았다.

중국 교재는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표준 한국어(수정판)』을 보면 1위에 '-은/는'을 제시하고, 2위에 '-을/를'을 제시하고 3위에 '-에서(장소)를 제시하였다. 이도 문형과 사용 빈도에 따른 순서와 일치하지 않았다. 5위에 조사 간 결합형인 '-에는'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에도'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말뭉치 빈도 순서를 따르면 조사 간 결합형의 두 번째는 '-에서는'을 제시해야 한다.

『기초 한국어(수정판)』에서 1위에 '-도'를 제시하고 2위에는 '-의'를 제시하고 3위에 '-에(장소/시간/목적지)'를 제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던 교재들이 문형과 사용 빈도에 따른 순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은/는'을 먼저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교재에서는 독특하게 보조사부터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 간 결합형의 제시 순서는 먼저 '-에도'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에는'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순서도 말뭉치 빈도 순서와 일치하지 않았다.

『한국어(수정판)』의 조사 제시 순서는 1위에 '-가/이'를 제시하고 2위에 '-는/은'을 제시하고 3위에 '-의'를 제시하였다. 1, 2위는 문형과 사용 빈도에 따른 순서와 일치하는데, 문형과 사용 빈도에 따른 순서 중의 3위는 '-을/를'이다. 조사 간 결합형의 제시 순서의 1위는 '-에는'을 제시하였지만 다음으로 '-께서는'을 제시하였다. 말뭉치 빈도 순서를 따르면 두 번째는 '-에서는'을 제시해주어야 바람직한데 이 교재에서의 조사 간 결합형의 제시 순서와 말뭉치 빈도 순서가 일치하지 않았다.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교재에서 제시 순서는 주로 사용 빈도를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 간 결합형을 제시하기 전에 단일 조사를 먼저 제시해 주어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지만 한 조사 간 결합형의 빈도수가 구성 요소인 단일 조사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사 간 결합형인 '-에는'의 빈도수가 5위에 있는데 구성 요소인 단일 조사 '-에'의 빈도수는 7위에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로 보아 본고에서 주장한 '빈도수 높은 조사 간 결합형을 제시하기 전에 단일 조사를 제시한 후에 제시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우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사 간 결합형을 먼저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사용 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박종효(2009)는 조사 '-은/는'은 사용 오류 총 965번 중에 누락 오류는 259번이 나타났고 첨가 오류는 94번이 나타났다. 조사 '-(으)로'는 사용 오류 총 229번 중에 누락 오류는 45번이 나타났고 첨가 오류는 3번이 나타났다. 물론 조사 사용 오류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일 조사보다 조사 간 결합형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조사 사용 오류를 더 생기게 할 수 있다. 초·중급 단계에서 조사를 제시할 때는 단일 조사를 제시한 후에 조사 간 결합형을 제시해야 한다.

4.3. 조사의 설명 방법

한국어 문법을 설명할 때 특히 초급 학습자들에게 모국어와 연관성이 있게 제시해 주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고 사용 제한까지 제시되는 것은 효율적이다. 본고에서 선정된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설명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 그를 보안한 설명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석주연(2005)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법 교육은 기본 문형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조사의 설명 방법에서 조사가 포함된 기본 문형을 제시하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교재『이화 한국어』, 『연세 한국어』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에서는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설명이 모두 부족하다. 또한 조사 '-에'와 '-에서'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고 서로를 구별하는 설명도 빠져 있다. 제대로 구별하여 기술하지 않으면 두 조사의 오용 오류가 많이 생길 것이다. 접속조사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와/과/하고'의 설명인 '열거'(『이화 한국어』) 혹은 '연결'(『연세 한국어』)은 적절하지 않다. 단순히 '열거'라고 하면 조사 '-(이)나'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별해주야 한다.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은 각각 의미·기능을 가진다. 서로 유사점이 있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다. 조사의 용법을 처음부터 구별해 주지 않으면 학습하면서 혼란이 많이 생길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보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31]

(11)『이화 한국어1-1』(2010: 38)의 조사 '-은/는'의 설명

-은/는: 조사, 문장의 화제를 표시한다.

· 마이클은

· 선생님은

(12)『연세 한국어1-1』(2007: 6)의 조사 '-은/는'의 설명

-은/는: 명사 뒤에 조사로 쓰여, 문장의 주제 혹은 토론한 화제를 표시한다. 명사가 받침이 있으면 '-은'을 사용하고 명사는 받침이 없으면 '-는'을 사용한다.

· 서울은 한국의 수도입니다. 首尔是韩国的首都。

·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我是韩国人。

또한 '-은/는'은 '대조, 강조'의 뜻이 있다.

· 동생은 키가 큽니다. 저는 키가 작습니다.妹妹个子高，我个子矮。

· 고기는 좋아합니다. 생선은 싫어합니다.我喜欢肉，不喜欢鱼。

(13)『기초 한국어(수정판)1』(2009: 89)의 조사 '-은/는'의 설명

-은/는(첨의조사): 체언 뒤에서 사용하고 화제의 주어(담화하는 상방이 이미 확인 되었고 다시대화 중에 놓고 화제의 주어를 표시한다.) 대조, 강조의 뜻이다. 체언은 받침이 있으면 '-은'을 사용하고 받침이 없으면 '-는'을 사용한다.

31) 『이화 한국어』(중국어판)와 『연세 한국어』(중국어판)에서는 문법 설명은 모두 중국어로 되어있다. 여기서는 한국어로 번역만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우리 학교는 이름답습니다. 我们学校很美丽。
· 그 아이는 아주 예쁩니다. 那个孩子真漂亮。

(14)『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 초급1』(2010: 57)에서의 조사 '-은/는'의 설명

-은/는
· 제 이름은 라이언이에요.
· 저는 학생이에요.
· 제 전공은 경영학이에요.

예시 (14)를 보시다시피 한국 교재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문법 설명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화 한국어』는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가 이러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연세 한국어』의 설명은 '토론한 화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아쉽다고 본다. '토론한 화제'라는 설명은 아주 불확실한데 중국『현대 한어 사전』에서 '話題'라는 단어는 '제목, 주제'라는 뜻이다. 담화에서의 '주제'와 문장 성분인 '주어'를 구별해 줄 필요가 있다. 예시 (13)인 『기초 한국어(수정판)』의 설명은 다소 혼란스럽다. 구체적인 설명 예시를 제시해 주지 않고 있어서, 조사 '-은/는'은 문장에서 '주어'를 표시하는 것인지, '주제'를 표시하는 것인지 애매하다.

그래서 본고에서 조사 '-은/는'에 대해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조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5) 조사 '-은/는'의 바람직한 설명

-은/는(주제): 앞에 명사는 받침이 있으면 '-은'을 사용하고, 받침이 없으면 '-는'을 사용한다. 조사 '-은/는'을 붙는 명사는 문장의미의 중심인 주제이다. 조사 '-은/는'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다.

前面的名词有收音时用'은',没有收音时用'는'.和助词'-은/는'连用的名词是句子意义的中心, 是句子的主题。助词'-은/는'没有汉语意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입니다.
北京(은)是中国的首都。
·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我(는)是中国人。

주격조사 '-이/가'도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는 조사이므로 조사 '-은/는'과 많이 혼동을 일으킨다. 애초에 구별 잘 해 주어야 오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선정된 교재에서 조사 '-이/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6)『이화 한국어1-1』(2010: 51)의 조사 '-이/가'의 설명 방법
-이/가: 조사, 문장의 주어를 표시한다.
· 학생이
· 마이클이

(17)『연세 한국어1-1』(2007: 38)의 조사 '-이/가'의 설명 방법
-이/가: 명사 뒤에 오는 주격조사가 해당 명사를 문자의 주어를 나타낸다. 명사는 받침이 있으면 '-이'를 사용하고 받침이 없으면 '-가'를 사용한다.
· 이것이 책상입니다. 这是桌子。
· 여기가 학교입니다. 这儿是学校。
· 이것이 책입니까? 这是书吗?
· 친구가 많습니다. 朋友很多。
인칭대사 '나, 너, 저', 의문대사 '누구'와 '가'결합하면 '내가, 네가, 제가, 누가'.
· 나→내 + 가 내가 말했습니다. 我说了。
· 너→네 + 가 네가 가? 你去吗?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화 한국어』에서 조사 '-이/가'가 '주어'라고만 제시하고 『연세 한국어』에서는 조사 '-이/가'의 설명은 '명사와 연결한 주어를 표시한 조사'라고만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부족하고 조사 '-이/가'와 조사 '-은/는'의 의미도 구별해 주지 않는다.

또한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교재의 예는 다음과 같다.

(18)『기초 한국어(수정판)1』(2009: 90)의 조사 '-이/가'의 설명 방법

-가/이/께서(주격조사): 주격조사'-가/이'는 체언 뒤에 쓰이고 동작, 상태 혹은 성질의 주체를 표시한다. 받침이 있으면 '-이'를 사용하고 받침이 없으면 '-가'를 사용한다. 존경의 대상을 표시할 때 '-께서'를 사용한다.

· 동생이 갑니다. 弟弟去。

· 나무가 많습니다. 树多。

· 아버지께서 주무십니다. 爸爸睡觉。

(19)『한국어(수정판)1』(2008: 68)의 조사 '-이/가'의 설명 방법

-이/가(주격조사): 문장의 행동, 상태, 성질의 주체를 표시한다. 앞 체언과 함께 문장의 주어를 구성한다. 체언에 받침이 있으면 '-이'를 사용하고 받침이 없으면 '-가'를 사용한다.

· 이름이 무엇입니까? (你) 叫什么名字？

· 비가 옵니다. 下雨了。

· 책이 좋습니다. 书很好。

예문(18)과 (19)에서 보듯이 『기초 한국어(수정판)』와 『한국어(수정판)』는 조사 '-이/가'와 조사'-은/는'의 차이점을 제시해주지 않았다. '상태, 성질의 주제를 표시하다'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설명은 명확하지 않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조사 '-이/가'에 대해 한 가지 바람직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 조사 '-이/가'의 바람직한 설명

-이/가(주어): 앞에 명사는 받침이 있으면 '이'를 사용하고, 받침이 없으면 '가'를 사용한다. 명사 뒤에 붙어서 문장의 주어를 나타낸다.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없다.

前面的名词有收音时用'이',没有收音时用'가'.和主语一起使用。没有汉语意思。

· 이것이 사과입니다.
这个(이)是苹果。

·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这儿是我家。

(21) 조사'-은/는'와 '-이/가'의 차이점:

a. '-이/가'는 명사 뒤에 나타나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고. '-은/는'은 문장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정보, 설명의 대상, 주제임을 나타낸다.

· 공부에 관해서는 영희가 최고다.
关于学习(는)英姬(가)是最棒的。

b. 이미 언급했거나 발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은/는을 사용한다. 대조, 강조할 때 사용한다.

· 철수가 학교에 왔다. 철수는 학교에서 영희를 만났다.
哲洙(가)来学校了。哲洙(는)在学校遇见了英姬。

예(21)중의 (21a)예문과 같이 문장의 주어인 '영희'의 뒤에 주격조사 '-가'를 쓰고 강조하는 주제어 '공부에 관해서'의 뒤에 보조사 '-는'을 쓴다. (21a) 예문에서 두 조사의 위치는 바꿀 수 없다. 예문(21b)는 '철수'가 처음에 나타날 때는 주어로서 주격조사 '-가'를 사용하고 다음에 나타날 때는 보조사'-는'을 사용한다. 앞에서 언급된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조사 '-은/는'을 사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다.

조사 '-은/는'와 '-이/가'의 구별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계속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고 교재에서 제시한 필요가 있다. 또한 격조사 '-에'와 '-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별해 줄 필요가 있다. 조사 '-에'의 용법 중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 곳'과 '시간'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낫다. 조사 '-에'와 '-에서'의 차이도 사용 오류가 높은 조사이기 때문에 구별해 주어야 한다.

선정된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 '-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22)『표준 한국어(수정판)1』(2011: 84)에서의 조사 '-에'의 설명

-에: 조사, 시간명사와 함께 사용한다. 시간을 표시한다.

· ㄱ: 언제 한국에 갔습니까? 什么时候去韩国的？

ㄴ: 작년 10월에 갔습니다. 去年10月去的。

· ㄱ: 생일이 언제입니까? 什么时候生日？

ㄴ: 1989년 8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1989年8月15日出生的。

『표준 한국어(수정판)』에서는 조사 '-에'에 대해 '장소'의 의미를 제시하지 않았고 모든 교재에서 조사 '-에'의 대응 중국 표현을 강조하지 않았다. 모국어인 중국어와 대응 표현을 같이 제시해 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제안하는 조사 '-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3) 조사 '-에'의 바람직한 설명

-에: 시간 혹은 지점명사와 붙어서 사용한다. 장소나 향한 곳이 시간·공간적 범위 등을 표시한다. '(어디)에 있다' 문형으로 많이 사용한다. 대응 중국어 표현은 '在, 向'등이 있다.

和时间或者地点名词一起使用。场所或要去的地方,时间,空间的范围等。对应汉语 意思有'在, 向'等。

· 4시에 집 앞에서 만납시다.

4点(에)在家附近见面吧。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친구가 일본에 있습니다.

朋友在日本(에)。

또한 선정된 교재에서 모두 조사 '-에'와 '-에서'의 차이점을 제시해주지 않았다. 이처럼 혼동이 많이 되는 조사 들은 구별해 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조사 '-에'와 '-에서'의 차이를 적고 다음과 같이 예를 제시한다.

(24) 조사 '-에'와 '-에서'의 차이:

'-에'는 정지상태의 지점을 나타내고, '-에서'는 뒤에 항상 동작동사가 온다.

· xx에 있다.

在xx。

· (xx)에서 (무엇을)한다.

在xx做(무엇을)。

접속조사 '-와/과/하고'는 『이화 한국어』와 같이 '열거'의 의미가 있지만 '-와/과/하고'는 '병렬 관계의 열거'로 설명하면 적절하다.

(25)『이화 한국어1-1』(2010: 68)의 조사 '-와/과/하고'의 설명

-하고, -와/과: 둘 이상의 사물을 열거함을 나타내고. '和'의 뜻이다.

· 책하고

· 연필과

· 의자와

(26)『연세 한국어1-1』(2007: 61/189)에서의 조사 '-와/과/하고'의 설명

-하고: 두개 혹은 이상의 명사를 연결해 준다.

· 책하고 공책이 있습니다. 有书和本子

· 빵하고 김밥을 먹습니다. 我吃面包和紫菜包饭。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와/과: 같은 것이 배열할 때

· 나는 봄과 가을을 좋아합니다. 我喜欢春天和秋天。

예문(25)과 (26) 같이 조사'-와/과/하고'의 '병렬 관계'를 강조해 주지 않고, '열거, 배열'의 의미만 설명하였다.

위의 지적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용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 '-와/과/하고'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7) 조사 '-와/과/하고'의 바람직한 설명

-와/과/하고: 중국어 연사와 같이 둘 이상의 병렬 관계를 표시한다. 또한 같은 계열의 명사를 열거할 때도 쓰인다. 대응 중국어 표현은 '和'이다.

和中国的连词一样, 表示两个以上并列的关系。也用于列举同一个系列的名词。对应汉语意思是‘和’。

· 친구와 영화를 보았습니다.

和朋友看了电影。

· 가방하고 구두를 삽니다.

我买包和鞋子。

한·중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간 결합형의 설명을 살펴보겠다.

조사 간 결합형을 제시할 때 우선 조사 간 결합형의 의미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한국 교재『연세 한국어』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는 조사 간 결합형의 항목만 제시하고 설명을 생략되어 있다.

또한 다른 교재에서의 조사 간 결합형의 설명을 살펴보자고 한다.

(28)『이화 한국어1-2』(2010: 44)에서의 조사 간 결합형의 설명 방법

-에서도: 순서대로 조사 두 개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있다.

· 학교에서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9)『기초 한국어(수정판)1』(2009: 102)교재에서의 조사 간 결합형의 설명 방법

-에는: 시간 혹은 지점의 대조, 강조

· 오후에는 도서관에 갑니다.

下午去图书馆。

-에서는: 단체 주어를 표시한다.

· 에서는 기와로 지붕을 올렸다.

有钱人家里的屋顶都盖了瓦。

-에도: '…도 같다'라는 뜻이다.'…也/也一样'뜻이다.

· 주말에도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에게는/한테는: 강조

· 나에게는 한 가지 열등감이 있었다.

对于我来说有一种自卑感。

(30)『한국어(수정판)1』(2008: 92)교재에서의 조사 간 결합형의 설명 방법

-에는: 강조, 대비

· 도서관의 동쪽에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서쪽에는 인문대학이 있습니다.

图书馆的东边是医科大。图书馆的西边是人文大。

-(으)로는: '…근거로는…'라는 뜻이다. '鉴于, 按照, 通过'의 뜻이다.

· 컴퓨터로는 아주 먼 곳도 빠른 시간에는 편지 연락이 가능하다.

即使是很远的地方也可以通过电脑用很快的时间联系上。

위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서의 조사 간 결합형의 설명 방법은 아주 간단하였다. 조사끼리 어떻게 결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단일조사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와 조사 간 결합형을 사용한 경우는 문장의 차이를 구별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 제시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단일 조사 '-에'와 조사 간 결합형인 '-에는', '-에도', 단일조사 '-에서'와 조사 간 결합형인 '-에서는'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1) 조사결합형 '-에는'의 바람직한 설명

-에는: 단일조사 '-에'보다 의미는 더 강조되고, '-에'와 붙어 있는 명사가 강조된다.

比单一助词'-에'的意义更强调。强调和'에'一起使用的名词。

· 이 가방에는 지갑하고 사전이 있습니다.

这个包里有钱包和字典。(强调'这个包')

· 이 가방에 지갑하고 사전이 있습니다.

这个包里有钱包和字典。

(32) 조사결합형 '-에도'의 바람직한 설명 방법

-에도: 부사격조사 '-에'와 보조사 '-도'의 결합이다. 격조사와 보조사 결합하면 보조사는 항상 격조사 뒤에 나타난다. '-에'의 의미를 바탕으로 '포함'의 의미를 추가한다. '连(지점/시간 명사)也….'

副词格助词'-에'和补助词'-도'的结合。格助词和补助词结合时, 格助词经常在前面补助词在后面。在助词'-에'的意义之上有'包括'的意思。'连(地点/时间)也…'

· 지난주에도 했어요.

上周也做了。

· 주말에도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连周末也学习韩国语吗？

(33) 조사결합형 '-에서는'의 바람직한 설명 방법

-에서는: 단일조사 '-에서'보다 의미는 강조하다.'에서'와 붙어 있는 명사를 강조함. 또한 단체주어를 표시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比单一助词'-에서'的意义更强调。强调和'에서'一起使用的名词。还表示‘集体主语’。

· 이 식당에서는 무슨 음식이 맛있습니까?
这个饭店什么东西最好吃？(强调'这个饭店')

이 식당에서 무슨 음식이 맛있습니까?
这个饭店什么东西最好吃？

· 도서관에서는 큰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在图书馆请不要大声说话。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선정된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설명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 제안을 제시해 보았다. 총괄하게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한 중국어 설명을 같이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어 문법 명칭인 '목적격조사', '주격조사', '관형격조사' 등은 중국어 문법체계에서 전혀 없으므로 이들 격조사의 차이나 용법, 의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용법의 특징을 귀납적 설명하지 못하고, 어떤 언어 환경에서 쓰이는지 어떤 위치에서 나타나는지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사 '-에'의 경우 『이화 한국어』에서 '행위의 방향이나 목적지'와 '명사 뒤에 지점이나 위치를 표시한다.'만 설명하였고 조사 '-에'의 구체적 용법과 사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셋째,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한 결합 순서나 결합 원리를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조사 간 결합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결합 순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화 한국어』를 '-에서도'를 제시할 때 '순서대로 조사 두 개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하였지,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하느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해 앞에서 지적해고 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조사에 관해 한국어 교재에서 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어와 중국어 설명을 같이 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용 방식을 제시해준다. 예를 들면 '-(으)로'같은 조사는 받침 없는 명사와 연결할 때 '-로'를 사용해야 하고 받침 있는 명사와 연결할 때 '-으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각 교재에 대해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응 중국어 표현까지 함께 제시해 준다. 접속조사 '-와/과/하고'는 '和'와 함께 제시하고 조사 '-만'은 대응 중국어 표현이 여러 가지인 경우는 예시에서 각각 표시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에 조사 간 결합형을 설명을 할 때 결합 순서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으)로도'는 격조사와 보조사가 결합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격조사가 항상 앞에 오고 보조사는 뒤에 온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따라야 초급부터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 정확하게 제시해서 학습자가 학습할 때 사용 오류를 최소화 시킨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결론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중국어에서 '조사'라는 품사가 전혀 없으므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조사 간 결합형의 사용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본고에서 한·중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한국어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어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2장에서는 연구 주체인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정의, 하위분류, 유형 등을 소개하였다. 이후에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쟁점을 정리해 보았다. 조사의 범주 문제와 조사 간 결합형의 유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대응 중국어 표현을 정리하였다. 중국어 체계와 한국어 체계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은 교재에서의 기술 방식을 분석하기 전에 필수적인 대응 중국어 표현을 알아보아야 한다. 단일조사와 대응 중국어 표현을 정리한 후에 조사 간 결합형의 대응 중국어 표현을 구체적인 문장에서 제시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한국어 교재에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 제시 순서, 설명 방법의 기술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비교·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양국 교재의 차이점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의 문제점, 제시 순서의 문제점과 설명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한국어 교재에서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명칭은 한국어 학교 문법의 조사 명칭과 일치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둘째, 한국어 교재의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순서는 기본적 조사 '-은/는', '-이/가', '-을/를'은 초반에 나타나야 하며 사용 빈도 순서를 기준으로 따라 제시해야 한다. 조사 간 결합형의 경우는 사용 빈도수가 높게 나와도 사용 오류가 생기지 않게 단일 조사를 우선 제시하고 조사 간 결합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설명 방법에서 대응 중국어 표현이 필수적이고, 혼란스러운 조사들의 차이점까지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한국어 문법의 기본 문형과 같이 제시해 주어야 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어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어떻게 기초 교재를 통해 초·중급 학습 단계부터 인식 시켜야 꾸준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언어 체계의 차이가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요구를 중심으로 조사와 조사 간 결합형의 구체적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비판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내었지만, 학습자 요구에 따라 구체적 교육 방안을 충실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조사 간 결합형에 대한 결합 원리와 결합 순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 문헌

고창수(1997), 한국어 조사결합에 대한 연구,『한국어학』5, 한국어학회, pp.87~106.

고창수(2013), 국어학: 한, 중 양어 비교 연구에 대하여, 『漢城語文學』32,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pp. 1~17.

고석주(2008), 현대 한국어 조사의 계량적 연구, 보고사.

고영근 · 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김경선(2008), 중한 언어차이와 문법 교육,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1, 한중인문학회, pp.69~76.

김윤수, 왕팡, 김경열(2013),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교육의 체계성 고찰: 부사격 조사 '에서'를 중심으로, 『개신어문학회 학술 대회』1, 개신어문학회, pp.1~13.

김재욱(2001), 한국어교육에서의 조사의 상호결합규칙,『우리어문연구』17, 우리어문학회, pp.77-92.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민(2007), 일본 대학 한국어 초급 교재의 문법 항목 분석과 교재 개발 방안: 조사와 어미 분석을 중심으로.

김정우(2008), 중국의 한국어 초급 교재 비교 연구,『한국어 교육』19-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34.

김순녀(2009),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재 편찬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순천향인문과학논총』24, 순천향대학교, pp. 249~274.

김지우(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생략 오류 분석과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영(2000), 조사연속구성과 합성조사에 대하여, 『형태론』2-1-3, 도서출판 박이정, pp. 59~72.

김 령(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미진(2013),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조사 오류 분석, 『영주어문』26, 영주어문학회, pp.61~89.

담 결(2010), 중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재 분석과 개발 방향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 문(2011),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 '-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동양효(2012),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결합 사용 교육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지혜(2012), 한국어 교재에서의 조사의 내용 제시 방안 연구: '에'와 '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진영(2002),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조사 오류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69~188.

박지용(2005), 현대한국어 조사 간의 결합관계 연구: 부사격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림 · 이길영(2008), 영어 문법 사용에서 학습자의 문법학습 태도 및 문법용어 인식연구,『영미연구』19,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pp.95~126.

박종후(2008), 한국어 조사 '의'의 의미 분류와 용법별 분포양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영(2005), 구어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겹조사의 결합 유형과 실현 양상,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영(2008),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 사용 오류 분석과 교수방안: 조사 '이/가, 을/를, 그리고 은/는'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호(2009),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연구, 『새국어교육』82, 한국국어교육학회, pp.127~143.

박은희(2013), 언어노출환경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결합 습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백 설(2012), 한국어 조사 〔에/에서/(으)로〕와 중국어 개사의 대조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 흔(2010), 한국어 조사 체계의 교육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민정(2011), 한국어 교재의 조사 기술 방식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석주연(2005),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형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교육』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69~194.

석주연(2007),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문법 제시 방안 연구: 두 모델 적용의 개서안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2007-145, 국어국문학회, pp.379~409.

석주연(2008), 『한국어 교사와 한국어 교육』, 박이정.

석 견 · 성윤숙(2009),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중국어 개사 대조 연구, 『중국인문과학』42, 중국인문학회, pp.111~134.

손정일(2004),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499~513.

손 함(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조 연구: '-에, -에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슬지엔(2010),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조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엄 녀(2007), 평가 · 기준을 통한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 교재 분석,『한국어 교육』1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35~262.

오수진(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조사 교육,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왕 봉(2008),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응관계 연구: '~에, ~에게'를 중심으로, 부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왕 미(2010), 중국대학교 초급 한국어 교재 문법 항복의 분석: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왕 엽(2011),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로' 사용 오류 분석과 교육 방안: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원진숙(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방향, 『국어교육』99-6, pp.31~54.

우순조(2006), 한국어 조사 기술과 관련된 쟁점과 대안: 표지 이론적 관점에서, 『우리말연구』18, 우리말학회, pp. 177~213.

유 양(2010), 중국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의 비교 분석과 개선 방안 -초급 교재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경화(2014), 한구어 복합 조사의 개념 정립, 『한중인문학연구』43, 한중인문학회, pp.101~120.

유 환(2014), 한국어 비교격 조사와 중국어 비교류 개사의 대조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규호(2001), 한국어 복합조사의 판별 기준과 구성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경(1999),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에 나타난 오류 분석: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정(2002),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교육 내용 비교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해영(2004), 한국어 교재의 문법 영역 분석 -'이/가'와 '은/는'을 대상으로, 『문법 교육』1, 한국어문법교육학회, pp.231~256.

이관규(2005), 교육용 문법 용어,『한국어교육론2』, 한국문화사, pp.149~163.

이안나(2010),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습득 순서 연구- '은/는, 이/가, 을/를' 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희(2012),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교재 개발 연구-교재 분석 및 요구도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23-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89~314.

이주화(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분석 '-이/가', '을/를', '에', '에서'의 오류를 중심으로,『문법 교육』19, 한국문법교육학회, pp.367~388.

이지영(1996), 한국어 조사의 교수 모형, 성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진은(2013),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 결합 교육 방안 연구, 『배달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9, 배달말학회, pp.401~425.
임동훈(2002), 한국어 조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한국어학』16, 한국어학회, pp.149~182.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국어학』43, 국어학회, pp.119~154.
장국강(2009),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중국학』33, 대한중국학회, pp.1~20.
장리나(2009),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 사용 오류 양상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수현(2010), 조사 '-에/-를'교체 구문의 의미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지은(2004),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조사 학습순서에 관한 연구: 기본문형과 조사 사용 빈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의 기본 원리와 실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223~250.
조련희(2006), 한국어교육에 있어서의 조사 학습 순서에 대한 연구-중국어권 초급학습자를 대상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산산(2012), 중국어 개사 '給'와 한국어 조사 '-에게'의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가리(2011), 중급 단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대치 오류 양상 및 방지 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재희(2004),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최응환(2005), 한국어 조사의 분류와 기능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33, 언어과학회, pp.331~348.
최병덕(2005), 한국어 조사 '~에게'에 대응하는 중국어 개사(介詞),『人文學誌』31,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55~76.
최전승 외(2008),『국어학의 이해』, 태학사.
최경화(2014),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결합 습득 연구-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추 민(2012),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에, 에게, 에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윤정(2010),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 결합 변이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송화(2010), 한국어 문법교육에서의 메타언어의 문제-문법용어에 대한 교사 및 학습자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호몽여(2013), 중국내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고급 교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은실(2005), 초급 한국어 수업의 교수 언어 연구: 메타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 287~329.
한정한(2010), 통사 단위 단어, 『국어학』2011-60, 국어학회, pp.211~232.
Berman, R.A(1979), Rule of Grammar or rule of thumb?,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7-4: 279~302.
Hutchison, T.(1987), Using grammar books in the classroom, Oxford University Press.
Borg, Simon(1999), The Use of Grammatical Terminology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A Qualitative Study of Teacher's Practice and Cognition, Applied Linguistics 20-1, 95~126.
範開泰, 張亞軍(2002), 『現代漢語語法分析』, 華東師範大學出版社.

한국어 교재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한국어1(1-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한국어2(1-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한국어3(1-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한국어4,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2007), 연세한국어1(1-2),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2007), 연세한국어2(1-2),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2007), 연세한국어3(1-2),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2007), 연세한국어4(1-2), 연세대학교 출판부.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회(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1-2), 한글파크.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회(201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1-2), 한글파크.
북경대학교 외(2010), 표준한국어1, 북경대학교 출판사.
북경대학교 외(2010), 표준한국어2, 북경대학교 출판사.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 학원(2009), 기초한국어1, 흑룡강조선민족 출판사.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 학원(2009), 기초한국어2, 흑룡강조선민족 출판사.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 학원(2009), 기초한국어3, 흑룡강조선민족 출판사.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 학원(2009), 기초한국어4, 흑룡강조선민족 출판사.
북경대학교 조선문화 연구소(2008), 한국어1, 민족출판사.
북경대학교 조선문화 연구소(2008), 한국어2, 민족출판사.
북경대학교 조선문화 연구소(2008), 한국어3, 민족출판사.

Collection @ chosun